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5163.57	↓ 코스닥	1108.41
	(-207.53)		(-41.02)
↓ 금리 (국고채 5년)	3.204	↑ 환율 (원·달러)	1465.10
	(-0.008)		(+14.90)



인공지능(AI) 도입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를 맡아온 청년 신입 인력에 대한 채용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GEMINIO로 생성한 이미지

AI 고도화에 신입채용 위축 전문직·블루칼라 예외 없어

인력 수요구조 재편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고도화로 청년 신입채용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수요 구조도 재편되는 모습이다.

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AI 도입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를 맡아온 청년 신입 인력에 대한 채용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AI발 고용 충격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지난 달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AI로 인한 하고 가능성이 핵심 이슈로 논의됐다.

**IMF “AI 확산으로 인한 해고에 대부분의 국가·기업 대비 못해”
3년간 청년층 일자리 21.1만개 ↓
이 중 98.6% AI고노출 업종 발생**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이 AI로 인한 해고에 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원 박재범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둘러싼 국가·기업 간 기술 경쟁이 이미 진행 중인 만큼, AI 확산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문제는 도입 여부가 아니라, 기업이 노동자들과 AI 전환 과정에 대해 얼마나 투명하게 협의하느냐”라고 말했다.

변화는 국내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최근 3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000개 감소했는데, 이 중 98.6%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 채용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신입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34% 줄었다. 업무 전반에 AI 활용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신입 채용에 보다 신중해졌다는 분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AI 도입에 따른 인력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KB국민

은행은 2023년 12월 AI 상담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콜센터 상담사 24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노조 반발로 해고는 철회됐지만, 이후 퇴사를 통한 자연감원이 이어졌다. 이는 기업이 직접적인 대량해고 없이도 인력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직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1200명 가운데 수습기관에 등록한 인원은 338명에 그쳤다. 공인회계사는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거쳐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 4명 중 3명이 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세미나’에서는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현장 발언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신입 양성 단절이 장기적인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AI의 영향은 사무직을 넘어 제조 현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피지컬 AI가 고도화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블루칼라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자동차 생산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콜센터 ARS를 중심으로 초보적인 AI 적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최근에는 AI 활용이 본격 확산되면서 회계사 등 전문직에서도 수습 중단 사태가 나타나는 등 대체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로 인해 일자리와 노동이 소멸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전환에 노사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기준으로 AI와 사람을 비교하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양도소득세 이어 보유세도 때린다

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완화 방안
7월 세계개편안에 ‘보유세’ 담을 듯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는 낮게해 불필요한 집 갖고있지 않게 해야”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 이어, 보유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주택 보유세가 낮은 대신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이 거래 활성화를 원천적으로 억제해 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올해 7월 중 발표될 세계개편안에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시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과거 발언에 주목하는 분위기

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언론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막인 효과’(매물잠김이 고착화된 상황)가 굉장히 크다”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보유세 및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전망이다이지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관련 논의도 지속돼 온 만큼, 정부가 오는 7월 세계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등의 거래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없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해서 불필요한 집을

갖고 있지 않게 하면서도 쉽게 팔고 나가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재경부도) 큰 틀에서는 이 방향으로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 대책으로 보유세를 쓸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세법 개정 같은 큰 틀을 통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논의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부분 중 올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다. 청와대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조치를 보유세와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 친수 및 간담회(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에게 우리나라 도약을 이끌 미래 과학자로서 다짐을 담은 기념액자 전달을 받고 있다. /뉴시스

李 “과학기술 인재 대체복무 확대 검토”

대통령과학장학생 등 청와대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투자하고 과학 기술인들이 인정받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격려했다. 또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대체복무의 확대와 군대 체제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장학

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 205명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35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인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면서 “앞으로는 국가장학제도 뿐 아니라 국가 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또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국방 의무와 관련해 “군대 체제를 대대적

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첨단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어 군 복무 자체를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병역 숫자와 보병 중심의 군대였다면, 현실적으로는 정비와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병력 역시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체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대체복무 확대 및 군 체제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



▲‘위안부피해자법’ 상임위 통과 …허위사실 유포 땀 형사처벌
▲정청래 “함당 선언한 적 없다 …초선부터 3선까지 의견 경청할 것”
/사진 뉴시스

▲조국 “민주당, 내부 논쟁서 합당 음모론 …우당에 대한 예의 없다”
▲‘줄속 함당 중단’ 與 서명운동, 이들 만에 2만 8000명 참여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 …최대 3년간 지원
▲여야, 정부위서 ‘김병주 김형석 위증’ 고발 두고 충돌

해외자원개발 예산·용자지원 확대 민간 참여 활성화… 광물확보 나서

산업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광해광업공단 역할 재정립 법 추진
올해 예산 675억, 용자비용 70%
실패 상환 감면율 90%까지 높이

정부가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예 나선다. 희토류를 계기로 해외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 산업안보 차원의 과제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작년 12월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논란 이후 공공기관의 직접 참여를 대폭 제한하면서, 민간의 해외 광산 투자도 위축돼 왔다. 특히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원광 확보부터 분리·정제까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민간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희토류 이미지.

/산업통상부

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이 초기 탐사·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재정립해 해외 희토류 프로젝트 발굴과 정책금융 연계, 기술·인력 지원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2026년 해외자원개발 용자 예산을 675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용자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실패 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감면율도 최대 90%까지 높인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수출입은행의 투자 조건 역시 완화해,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 추진이 특정 국가나 광종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핵심광물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해외자

원개발 지원 체계의 복원으로 보고 있다. 희토류를 계기로 시작하지만, 향후 리튬·니켈·코발트 등 첨단산업 핵심 광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 신규 조성 등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립첨단산업을 방문해 현대차, 포스코인터내셔널, 고려아연 등 주요 희토류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와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설탕·밀가루 가격 내린다

각각 평균 5%, 5.5% 인하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업소용(B2B)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한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B2C 설탕 제품(총 15 SKU)이 최대 6%(평균 5%)이며 백설 찰밀가루, 박력1

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의 경우 전 제품(총 16 SKU) 최대 6%(평균 5.5%)다.

CJ제일제당측은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올리브영 ‘웨이크메이크’ K-브랜드 만든다

자체 브랜드 론칭… 글로벌 확장
‘마이 컬러, 마이 웨이’ 캠페인 공개

CJ올리브영이 자체 브랜드(PB)를 앞세워 K뷰티의 글로벌 확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중심에서 벗어나 웰니스, 이너뷰티, 친환경 영역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브랜드 경쟁력을 다각화하는 모습이다.

5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 자체 브랜드 ‘웨이크메이크’는 올리브영 대표 메이크업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웨이크메이크는 2026년 캠페인 메시지로 ‘마이 컬러, 마이 웨이(나만의 색, 나만의 뷰티)’를 공개했다. 메이크업 유행을 특정 색으로 한정하기보다 개인 라이프스타일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맞춤형으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번 신제품 출시에는 웨이크메이크 소비자 품평단이 참여했다. 28명의 소비자가 샘플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각자 취향을 반영하는 등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 브랜드 주력 제품인 헬시글로우 밤 스틱과 소프트 블러링 밤 스틱이 각각 2종씩 새로운 색을 추가해 총 40가지 색상을 갖추게 됐다.

올리브영은 2015년부터 웨이크메이크를 운영해 왔고 지난해에는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서울 성수에서 브랜드 단독 쇼룸을 운영하기도 했다. 국내는



메이크업 브랜드 ‘웨이크메이크’ /CJ올리브영.

물론 일본 등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늘렸다. 일본 최대 뷰티 편집숍 앳코스메, 플라자, 로프트 등으로 현지 공급망을 늘려 왔다.

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진출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유통기업 가보나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가보나는 유럽 지역 60개 국가에서 8000종 이상의 화장품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올리브영의 바이오 스킨케어 ‘바이오희보’, 비건 스킨케어 ‘브링그린’, 색조 브랜드 ‘컬러그램’ 등은 가보나를 통해 우선 폴란드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

해당 브랜드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바이오힐 보의 경우, 고기능성 항노화 제품인 프로바이오티스 3D 리프팅 크림 매출에서 외국인 구매 비중이 44%에 달한다.

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 확장으로 수출 전선뿐 아니라 K뷰티 범위를 폭 넓게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주가조작뎀 ‘패가망신’… 끝까지 추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원스톱 불공정거래 수사 체계’ 구축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
금감원 내 구축, 신속·효율성 극대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며, 시장감시부터 기획조사,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원스톱 불공정거래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 대응단을 확충한 데 이어, 다수 종목 연계 혐의군까지 적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계좌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조사·검사·회계감리를 병행해 수사기관 이첩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 확대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인지수사권이 도입되면 검찰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부터 배당받은 사건뿐 아니라 금감원이 자체 발굴한 사건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주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CEO 선임 절차와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금감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가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도 금감원의 핵심 과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빈발하는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예방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노력하겠다”며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IM A·발행어음 지정·인가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정착과 중투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이어가며, PF 연착륙과 시장 안정,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패러다임’과 ‘군건한 금융시스템’을 포함한 5대 중장기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오는 9일 2026년도 세부 업무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정윤 기자 zelkova@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5889가구 매입

국토부 “패스트트랙 시행, 신속매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000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40건을 추가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총 5889가구를 매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6449명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 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7일 기준으로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889가구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전체 실적의 87%인 5128가구를 매입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사기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화재 안전성·국내산 소재 등 ‘非가격 요소’ 승부처 부상

2차 ESS 중앙계약 경쟁입찰

기술·안전 중심 평가기준 강화
배터리3社, 국제인증 등 맞춤 대응
이달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제2차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최종 심사에 최소 1명의 화재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이번 입찰 결과가 화재 안전성 확보 수준과 국내 산업 기여도, 국내산 소재 활용 비중 등 비가격 요소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가 기준 전반에서 안전성과 기술 완성도의 비중이 한층 높아지며 입찰 판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3사가 경쟁하는 국내 ESS 중앙계약시장 2차 경쟁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설 연휴 이전, 늦어도 2월 말까지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입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찰 규모는 총 540MW로, 거의 1조원 수준에 달해 2차 결과를 앞두고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2차 입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화재·설비 안전성 평가의 강화다. 전력거래소는 국내 ESS 중앙계약시장 2차 경쟁입찰에서 안전성 강화 기조에 맞춰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손질하고, 평가 과정에 화재 안전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차 경쟁입

찰 평가위원회에는 화재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1차 입찰에서 평가위원 구성이 무작위로 이뤄지며 화재 전문가 참여 여부가 달라졌던 구조에서 벗어나, 안전성 평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평가 항목과 배점 구조 역시 안전성 중심으로 조정됐다.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는 비가격 평가 비중이

확대되면서 화재 안전성 점수가 기존 6점에서 11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내 산업 기여도와 국내산 소재 활용 비중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며, 기술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들은 화재 안전성과 시스템 완성도를 전면에 내세운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UL 9540A(열폭주 시험 표준) 기준을 충족한 데 이어 국내 업체 최초로 대형 화재 모의시험(LSFT)을 통과하며 시스템 단위 화재 안전성을 검증했다. 여기에 북미 ESS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잇달아 확보하며 실증 경험과 운영 트랙레코드를 쌓고 있다는 점도 국내 평가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차 입찰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삼성SDI는 각형 배터리 폼팩터를 기반으로 모듈 내장형 직분사(EDI)와 열 확산 방지

(No-TP) 기술 등을 적용해 차별화된 안전성 강화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SK온은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과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ESS 화재 안전 기술과 신규 소재 검증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기안전연구원의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진단 시스템과 액침 냉각 등 차세대 안전 기술에 대한 검증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 기준이 기술력과 안전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번 입찰 결과를 두고 업계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을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최종적인 변별력은 화재 안전성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등 비가격 요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북미 배터리시장 주도권 경쟁 격화

전기차 부진에 ESS 무게 중심 이동
K-기업, 中 공세·완성차 가세 ‘이중고’

전기차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북미 배터리 시장의 무게중심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옮겨가는 가운데 중국산 LFP 배터리의 가격 공세와 테슬라·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 가세로 배터리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시장 입지를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전력망 안정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증설이 맞물리면서 올해 글로벌 ESS 설치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둔화로 가동률 부담이 커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ESS 사업 비중을 확대하며 돌고구를 모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등 북미 현지 공장을 중심으로 전력망·데이터센터용 ESS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며 수주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 북미 생산 비중을 높여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셀·시스템 단위 안전성 검증을 앞세워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삼성SDI 역시 ESS 전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형 LFP 배터리를 적용한 SB B 2.0을 미국에서 생산해 현지 ESS 프로젝트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SK온도 미국 조지아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ESS용 LFP 배터리로 전환해 북미 ESS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기준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과 공급 경험 면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들까지 ESS 시장에 가세하며 경쟁 구도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ESS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방어선이자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재정립할 수 있는 핵심 전장”이라며 “현지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성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임광현 “정책 일관성 중요… 이제 정상화”

〈국세청장〉

》 1면 ‘양도소득세 이어…’서 계속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올해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할 시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주택 양도가액이 20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경우,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에서는 세 부담이 2억6000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세 부담이 3억3000만 원, 3주택자는 4억2000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양시 공고 제2026 - 33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등) 해제]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 2. 6.

고양시장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k㎡)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고양시 전역	112.784	감0.023	112.761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23-123호(2023. 4. 28.)에 따른 면적임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계		22,741	
	1	덕양구 대자동 134-26번지 일원	4,4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2	덕양구 대자동 139-8번지 일원	200	
	3	덕양구 대자동 334-1번지 일원	8,065	
	4	일산동구 백석동 459번지 일원	9,630	
	5	덕양구 내곡동 485-15번지	4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 규정에 따라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가. 관계도서 : 개제생략 (공람 장소 비치)

나.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2. 6.(금) ~ 2026. 2. 20.(금) (15일간)

다. 공람 장소

○ 고양시청(도시계획정책관), 덕양구청(건축과), 일산동구청(건축과)

○ 고양동, 장항1동,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라.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공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블보다 무서운건 ‘구조 변화’ 美증시, 지수·ETF가 주도한다



AI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된다. 급등이 나오면 ‘버블’이라는 경고가 따라붙고, 조정이 오면 ‘닷컴 시절’의 악몽이 소환된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 흐름은 이 논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별 기업의 과열 여부를 따지기보다, AI와 빅테크가 지수 비중을 바꾸고 ETF 자금이 시장을 움직이는 미국 시장의 구조 자체를 포트폴리오로 이해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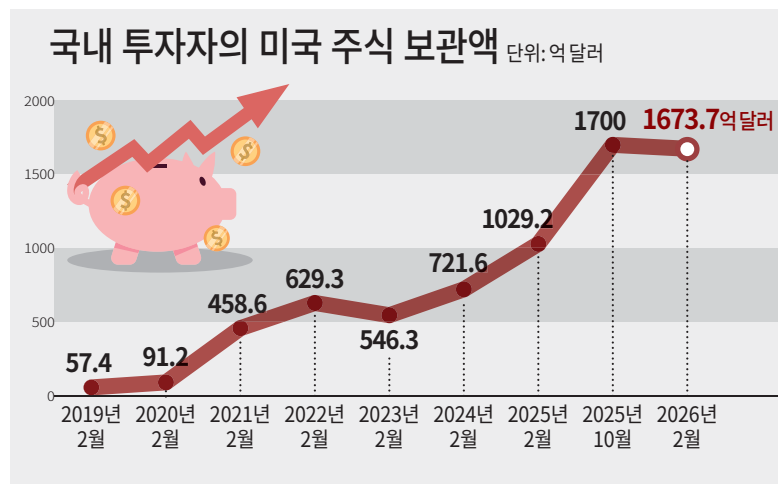
실제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1700억달러를 넘었고 이후 16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도 지난해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하며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났다. 미국 증시가 더 이상 ‘해외투자처’가 아니라, 한국 개인의 기본 자산 배분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다.

이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곳 중 하나가 글로벌 대표지수 제공사인 S&P Dow Jones Indices(S&P DJI)다. 지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오늘날 미국 시장의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지도다. 이수(Sue Lee) S&P DJI 디렉터는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은 이제 지수와 ETF, 그리고 AI 빅테크가 함께 가격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ETF 시장에서는 순자산 10조원을 넘는 초대형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ETF 순자산 1위 상품 역시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래셋증권의 ‘TIGER 미국S&P500’이 차지했다.

ETF 투자 규모로 보면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상승세와 활황을 보이면서 코스피(KOSPI) 추종 ETF로 자금이 이동할 때도 있었지만, 상위 5위권(시가총액 기준)으로 넓혀 보면 ▲TIGER 미국S&P500(14조5234억원) ▲KODEX 미국S&P500(8조1378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7조7806억원) 등 미국 지수 추종 ETF가 3개나 포진해 있다. 국내 대표 지수 상품인 KODEX 200(14조4470억원)과 현금성 자금이 몰린 KODEX CD 금리액티브 ETF(8조2222억원) 역시 상위권에 자리했지만, 상위권 미국 ETF 시가총액 합산 규모는 30조4418억원으로 국내 ETF(22조6692억원)보다 7조7726억원 더 컸다. 상위권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국내 투자자 자금의 무게중심이 여전히 미국 시장으로 기울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투자자들의 ‘기본 포지션’ 포트폴리오에 미국 대표지수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 자금이 향하고 있는 미국 시장은 어떤 구조로 재편되고 있을까.



ETF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단위: 원

TIGER 미국S&P500	시가총액	14조5234억원
KODEX 200		14조4470억
KODEXCD금리액티브ETF		8조2222억
KODEX 미국S&P500		8조1378억
TIGER 미국나스닥100		7조7806억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TF Check

“

이수 S&P DJI 디렉터

AI 확산, 산업 전반 생산구조 재편 가속
빅테크 비중 확대, 지수 내 영향력 집중 심화
서학개미 자금, 미국 대표지수 중심 이동
단기 레버리지 매매·장기 인덱스 적립 병행
‘액티브’ 장기 열세 속 ‘지수투자’ 확산

”

◆ “AI는 IT기업 전유물 아냐”… 지수 안에서 커지는 ‘빅테크 경제’

이 디렉터는 AI가 단순히 기술주 섹터의 테마로 소비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그는 “AI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IT 섹터를 떠올리지만,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I는 산업 분류 자체를 흔들고 있으며, 지수 안에서 그 영향력이 IT를 넘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비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S&P500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지수의 40%에 육박한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모두 전통적인 IT 기업으로만 묶이지 않는다. 엔비디아는 IT 섹터지만, 아마존과 테슬라는 임의소비재, 메타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속한다. AI가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비용 구조를 바꾸는 흐름이라는 뜻이다.

S&P DJI 분석에서도 미국 시장의 구조적 비중은 압도적이다.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은 약 26%지만 글로벌 주식 시장 시가총액에서는 미국이 62%를 차지한다. 산업별로 봐도 글로벌 11개 섹터 중 9개 섹터에서 미국 기업이 절반 이상의 시가총액을 점유하고 있다. IT는 8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73%, 헬스케어는 66%에 달한다.

이 디렉터는 “미국은 단순히 한 국가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의 중심이 되는 시장”이라며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지수를 기본 포지션으로 삼는 배경도 결국 이 구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 레버리지 선호하면서도 ‘美지수 투자’ 사랑하는 서학개미

한국 투자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집단으로 평가된다. 공격적이면서도 장기적이다. 이 디렉터는 “중국과 한국은 글로벌에서도 가장 스펙클레이션

이 높은 시장 중 하나”라며 “레버리지·인버스 ETF 비중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동시에 한국은 장기 인덱스 투자에서도 이례적인 흐름을 보인다. 특히 IRP와 퇴직연금 자금이 국내 주식보다 미국 지수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은 글로벌 기준에서도 독특하다. 이 디렉터는 “미국에서도 S&P500 ETF의 가장 큰 수요원 중 하나는 퇴직연금 자금이지만, 한국은 ETF 시장 전체에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ETF 비중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ETF 순자산 1위가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S&P500이었던 점은 상징적이다.

한국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로 방향성을 베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S&P500과 나스닥 같은 코어 지수에 적립식으로 자금을 쌓고 있다. 이 디렉터는 이를 두고 “공격성과 규율이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환율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그는 “환율 리스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지만 항상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니다”며 “급락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낙폭을 줄여 주기 때문에 환 노출이 오히려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 약세가 구조

화된 환경에서 달러 자산이 포트폴리오의 완충재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 “프로도 못 이기면 개인은 더 어렵다”…SPIVA가 보여준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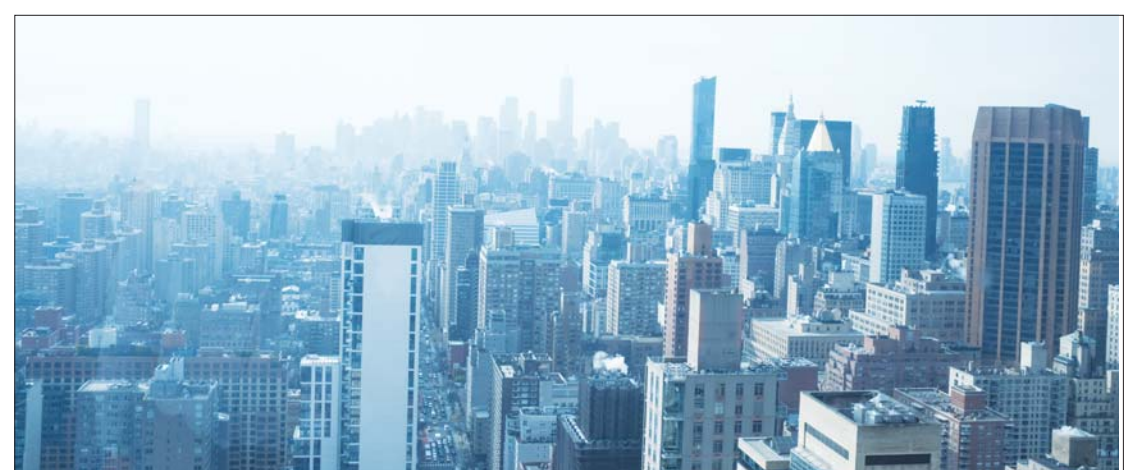
지수 투자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다. 이 디렉터는 액티브 펀드 성과를 추적하는 SPIVA 리포트를 언급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액티브가 벤치마크를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가장 강력한 숫자는 ‘2020년, 7%’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대형주 액티브 펀드 중 S&P500을 아웃퍼폼한 비율은 약 7%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시장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디렉터는 “프로들도 장기적으로 벤치마크를 이기기 어렵다”며 “개인은 수십 종목을 다 모니터링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위너를 가려내기 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 인덱스라는 설명이다.

지수 투자의 본질은 ‘승자 교체’다. 그는 “1970년대 탑10 기업 중 지금 남아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인덱스는 산업 흐름에 맞춰 위너를 편입하고 루저를 제외한다”고 말했다. 개별 종목 투자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승자를 골라야 하지만, 지수는 시장이 승자를 교체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반영한다.

이 디렉터는 “미국 시장은 이제 AI와 빅테크, ETF 자금이 지수 위에서 가격을 만드는 구조로 진화했다”며 “한국 투자자들은 그 변화를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자산운용 자회사 글로벌X 뉴욕 본사에서 내려다본 뉴욕 맨해튼 전경.

/허정윤 기자



AI 시대 전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김동연 아성에 중진 경선 치열 vs 중도 유승민 차출론 무성

☞ 지방선거 돋보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가운데 단연 주목받는 곳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다. 이곳 경기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선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권에 불리한 선거 판세가 조성됨에 따라 중량감 있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4년 전엔 0.15%p차 박빙 승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56.40%의 득표율을 기록해 35.51%를 기록한 남경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20.89%p 차이로 따돌리며 압승을 거뒀으나 2022년 제8회 지선에선 양상이 달라졌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천받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 캠프와 대통령실 등에서 대변인을 맡은 김은혜 후보가 나와 맞붙었다. 김동연 후보는 최종 득표율 49.06%였고 김은혜 후보는 48.91%였다. 둘의 득표율 차이는 단 0.15%p였을 만큼 치열했다.

◆與 ‘6선·최고위원까지 대거 출마’

제9회 경기도지사 선거판도 4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양당의 출마 분위

② 최대 인구 거주 ‘경기도’

기부터 사뭇 다르다. 먼저, 민주당은 치열한 내부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인사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6선·경기 하남시갑), 김병주 전 최고위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 한준호 전 최고위원(재선·경기 고양시을), 권철승 의원(3선 경기 화성병)이다.

이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 경기도지사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김동연 지사에 도전한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서 전력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최근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1일 18세 이상 경기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는 김 지사가 30.0%, 추미애 의원 18.3%, 한준호 의원 7.8%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지사 33.4%, 추 의원 32.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무당층에서는 김 지사 19.1%, 추 의원 5.9%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野 ‘차출론만 무성’

4년 전 초박빙 승부로 4년 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주 전 최고위원



권철승 의원



추미애 의원



한준호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지난 지선은 0.15%p로 간발의 차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들 출마 선언 국힘, 불리한 판세에 중도 목소리

의 패권의 향방을 오리무중에 빠트렸던 국민의힘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이후

전국적인 여론이 반전되면서 중량감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주자들의 도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를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유 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어떤 분은 경기도지사 도전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려고 하지만 전혀 생각이 없다” 선을 그었다.

직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있다. 4년 전 접전을 펼친 김은혜 의원(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과 중도 확장력이 있는 안철수 의원(4선·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경기도지사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마 결심을 굳힐 수도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8%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안철수 현 국회의원 17.1%, 김은혜 현 국회의원이 16.0%로 오차범위 내의 수치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은혜 의원이 42.0%로 가장 높았다. 안철수 의원이 22.6%, 유승민 전 의원이 12.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1일 1일간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원회총회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

합당 반대에 사퇴요구까지… 여야대표 수난

與 정청래, 절차적 민주성 문제 지속 野 장동혁, ‘전당원 투표’ 선언

국회의 거대 양당이 ‘전(全)당원 투표’ 국면에 휘말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 때문이다. 여야 대표가 모두 당내 반발로 인해 수난을 겪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초선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6일은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10일 재선 의원 간담회를 한다. 3선 의원 간담회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합당 관련 전당원 투표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한 데 대해 당내에서 ‘독단적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당내 소통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절차적 민주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면, 합당 명분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1인1표제가 ‘당원 주권’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3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역시 ‘당원 주권 강화’라는 대의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일어났고, 이에 장 대표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신임 투표’ 성격의 전당원 투표를 벌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내, 일부 광역단체장이 유불리에 따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는) 최고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의 목소리가 있다면 저는 사퇴 또는 재

신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대표는 당원이 선출한 자리로,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원밖에 없다”며 “가벼이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가벼이 당 대표 스스로 직을 물러나는 것은 당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신임을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의 ‘전당원 투표’ 선언은 격화되는 당 내홍을 정리하고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 전당원 투표를 장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바, 이를 통해 당내 반발세력을 누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

李 “수도권 1극 타파하면 부동산 문제해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지방수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부동산 문제가 생겼으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면서 “전 국토의 12%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을 이체럼,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수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또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을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수도권 1극 체제 타파를 위해 국가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조달 분야,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용이 똑같으니, 지방 거를 먼저 쓴다든지 입찰이나 이런 데서 지방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 대대적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직원들한테 밥값을 차라리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구내식당) 있는 거는 일자리 문제나 확보된 공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옮기게 되면, 지방 활성화를 위해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해주고 밖에서 먹는 것도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얼핏 들었다”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지난해 금융사 실적

순익 5.8조 ‘어닝서프라이즈’ 은행이익 확대가 실적 견인

* KB 금융그룹

5조클럽 1년만에 6조원 바짝 다가서
자기자본이익률 10.86%, 1.12%p 상승
국민은행 당기순익 3.8조, 18.8% 증가



KB금융그룹 전경.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순이익 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금융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5조 클럽’을 달성한 지 1년 만에 6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KB금융은 5일 2025년 누적 당기순이익 5조 8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86%로 전년 대비 1.12%포인트(p) 높아졌다.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8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늘었다. KB금융 재무담당 나상록 전무는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등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핵심 계열사의 이익이 확대되고, 자본시장 관련 수익을 중심으로 비이자 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그룹의 수익창출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순수수료이익은 4조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해 분기별 평균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확대되며 증권업수입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었고, 방카슈랑스 판매 호조와 신탁이익이 확대되며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순이자이익은 13조731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됐지만 은행의 대출자산 편잔 증가와 함께 전략적인 핵심예금 확대 정책으로 조달비용이 줄었다.

작년 4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7213억원이다. 그룹 회망퇴직비용과 추가연계증권(ELS) 등 과징금 관련 충당부채 전입 등 일회성 요인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그룹의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은 797조9000억원, 관리자산(AUM)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4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79%, 16.16%로 업계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KB금융은 실적 개선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을 발표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2025년 4분기 주당배당금을 전년 동기 804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1605원으로 결의했다. 기지급된 2025년 분기별 현금배당을 포함한 총 현금배당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5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연간 배당성장률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7%로 고배당기업 기준인 25%를 넘어서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전년말 CET1 비율에 연동해 산출된 2026년 1차 주주환원 재원도 역대 최대인 총 2조8200억원 규모다. KB금융은 이를 현금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에 각각 1조6200억원, 1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주환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주주(국민)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주주환원 방안에 대해 그룹이 다각도로 고민을 거듭한 결과”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당기순익 4.9조 ‘역대최대’ 비이자이익 중심 실적 날개

* 신한금융그룹

당기순익 11.7%, 비이자이익 14.4% ↑
“조달비용 효율화로 NIM 2bp 개선”
대손충당금 전입액 전년비 4.1% 감소



신한금융그룹.

/뉴시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4조97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5일 신한금융은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조97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4조5175억원) 대비 11.7% 증가한 수준이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5106억원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이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한 배경에는 비이자이익을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이 컸다.

신한금융의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3조7442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4.4% 증가했다. 수수료 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보험이익 등 비이자이익의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이자이익은 11조69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조달비용 효율화를 통해 전분기 대비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2bp(1bp=0.01%포인트) 개선됐다”며 “수익성 중심 적정 성장을 통해 4분기 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다”고 말했다.

비은행 자회사의 실적회복에 따라 그룹 손익 개선흐름도 강화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3815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전년(1792억원)과 비교해 113% 늘었다. 신한자산신탁은 2024년 3206억원 적자에서 2025년 19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2조1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대손충당금은 기업이 외상매출금이나 대출금 등 받을 돈(채권) 중, 미래에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대손상각

비)으로 처리해 적립해 둔 예비금을 말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연간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비경상적 손실이 감소했다”며 “대손비용률도 하향안정화 됐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자본비율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그룹 BIS자기자본비율은 15.92%,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33%를 기록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통상 8%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0%를 넘으면 우량은행으로 평가한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분기 주당배당금을 880원으로 결정했다. 개인 투자자의 분리과세 혜택 적용을 고려해 기존 570원에 추가 310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를 포함한 지난해 연간 주당 배당금은 2590원이다.

신한금융 장정훈 재무부문 부사장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자본비율 관리, 자기자본이익률(ROE) 중심의 밸류업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견조한 재무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하는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4억 집 소유자, 주택연금 월 4만원 더준다

금융위, 2026 주택연금 개선방안
초기보증료 주택가격 1.0%로 인하
요양시설 입주해도 주택연금 가입

앞으로는 1주택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시설, 자녀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즉시 부과되는 초기 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또는 확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요〉

구분		세부내용
가입연령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보유주택 수		부부 기준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합산금액 12억원 이하(다주택자도 가입 가능)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2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입가능
주택 요 건	주택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거주여부	실거주 필요(주민등록 전입)
	주택유형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면적이 1/2이상인 복합 용도 주택 *1. 실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 2.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재산세 납부 등 가능해야함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우대 지원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령액 우대 폭을 더 확대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시 주택연금 수령액이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 월 12만4000원 오른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예컨대 평균 가입자(주택가격 4억원)의 경우 초기보증료는 기존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 든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만에 ‘둔화’

다주택자 양도세 등 효과에 관심
마포 상승률 0.26%, 동작 0.29%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둔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1·29 공급대책 등 부동산 압박이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의 전국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7%로 지난주(0.31%)보다 오히려 줄었다. 지난 1월부터 3주 연속 확대되다가 한 달 만에 둔화한 셈이다.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크게 꺾였다. 지난주 각각 0.41%, 0.44%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마포구와 동작구는 이번주 0.26%, 0.29%로 상승폭이 줄었다. 성동구 역시 0.40%에서 0.36%로 둔화한 모습이다.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의 집값 상승률이 0.31%에서 0.18%로 축소됐고, 강동구(0.39→0.29%), 노원구(0.41→0.30%)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상승폭이 완만해졌다.

세제, 대출 등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

고 새로운 공급대책이 나오면서 매수를 관망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11개구의 상승률은 0.27%로 전주(0.32%)에 비해 둔화했지만 관악구는 오름폭을 키웠다. 관악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크게 상승하며 0.57%를 기록했다.

강북 14개구는 상승률 0.26%로 전주 0.30%에서 다시 0.2%대로 내려왔다. 성북구(0.41%)는 길음·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36%)는 옥수·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경기도는 3주 연속 0.13%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 수지구(0.59%)는 풍덕천·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구리시(0.53%)는 인창·교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안양 동안구(0.48%)는 호계·관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은 0.02%로 지난주(0.04%)보다 오히려 작아졌다. 연수구(0.12%)는 연수·동춘동 선호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2%)는 산곡·갈산동 위주로 올랐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AI·모션바람’ 기반 생활패턴·공간환경 특화 냉방 구현”

삼성전자 미디어 브리핑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 등 소개
음성비서 ‘빅스비’ 통해 간편제어
갤러리 프로 모델 사전판매 실시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은)기류 혁신을 구현한 AI·모션바람’ 기능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냉방 경험을 업그레이드했다. 글로벌 에어컨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

신문선 삼성전자 DA사업부 에어솔루션개발팀 상무가 5일 삼성전자 우면 R&D 캠퍼스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 스탠드형인 ‘비스포크 A 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와 벽걸이형인 ‘



신문선 삼성전자 DA사업부 에어솔루션개발팀 상무가 5일 삼성전자 우면 R&D 캠퍼스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로 2개 라인업을 소개했다.

신 상무는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최초로 무풍 제품을 출시했고 1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디자인 업그레이드, AI모션바람, 무풍 쾌적 제습, 이지케어 등의 방향으로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2026년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에어컨은 생활 패턴과 공간 환경에 맞춰 특화된 기류를 선택할 수 있는 ‘AI·모션 바람’ 기능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가 있는 공간으로 시원함을 바로 전달하는 ‘AI 직접’ ▲사용자가 없는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는 ‘AI 간접’ 등 AI 기반으로 동작하는 2가

지바람과, ▲좌우 공간으로 회전하며 넓은 공간을 고르게 순환하여 냉방하는 ‘순환’ ▲시원한 바람을 최대 8.5m까지 보내는 ‘원거리’ ▲직바람 없이 쾌적함을 선사하는 ‘무풍’ ▲전작 대비 19% 더 빠르고 강력해진 냉방을 제공하는 ‘맥스(Max)’ 등 일반 모션 바람 4종을 지칭한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도 갖췄다. 이번 신제품에는 사용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AI 음성비서 ‘빅스비’가 적용됐다. 사용자는 제품 사용법을 묻거나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 “습도 60% 이상이면 에어컨 켜고 제습 모드 설정해 줘” 등 자연스러운 발화로 기기를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편안한 수면을 돕는 ‘웨더러블 굿슬립’ 기능도 탑재됐다. 에어컨과 연동된 갤럭시 위치로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면 단계별 최적화된 맞춤 냉방 운전을 실행해 깊은 수면 유지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디자인이 한층 간결하게 개편됐다. 가로 넓이가 전작 대비 30% 슬림해졌고 돌출되는 부분이 최소화돼 설치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일체감을 구현한다.

김현수 삼성전자 에어솔루션 디자인 담당 그룹장은 “하나의 소재처럼 느껴지는 단순함으로 부품 영역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경쟁사 대비 훨씬 슬림해진 사이즈로 공간에 적극 녹아들고 조화로운 강조해보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제품은 에센셜 화이트, 에센셜 플럼, 사틴 그레이지, 미스티 그레이 등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또 컬러 액정 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감성을 더하고 동작 중에는 텍스트로 정보를 전달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까지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모델에 한해 사전 판매를 실시한다.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사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93만 원의 제품 할인과 삼성케어플러스, 올리브영 상품권 등 30만원 상당의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높아지는 탄소 장벽... K-기업, 수출부담 가중

EU 집행위, 유럽산 우대 정책 예고
철강·조선분야 등 경쟁력 약화 우려

유럽연합(EU)이 탄소 규제와 역내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대EU 거래·조달 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조선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가동에 더해 EU가 유럽산 우대 기조를 내세우면서, 유럽 시장의 비용·조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로이터와 업계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조선·해양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산 우대 패키지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선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장비·서비스의 EU 내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유럽은 국내 조선업에 의미 있는 수요처다. 유엔 무역정보센터(UN Comtrade)의 이달 업데이트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한국의 선박·보트 및 기타 부유 구조물 수출액은 240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EU의 한국산 해당 품목 수입액은 54억8000만 달러로 단순 비교하면 한국 선박 수출의 20% 이상이 EU 시장에서 소화된 셈이다.

유럽의 역내 생산 확대가 곧바로 조선 경쟁 구도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해운·조선 전문 분석기관 마리티타임에듀케이션은 지난해 기준 유럽의 글로벌 조선업 점유율을 4% 수준으로 제시했다. 중국(53%)·한국(27%)·일본(14%)과 비교하면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EU는 역내 배출권거래제(ETS) 부담과의 형평을 내세워 수입품에도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CBAM도 도입했다. CBAM은 올해부터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가, EU 수입업자가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올해 국내 철강업계의 CBAM 부담액을 851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2024년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4개사 영업

이익 합계(2조2790억원)의 3.7% 수준이다. SGI는 현행 제도와 무상할당 축소를 전제로 할 경우 오는 2034년에는 연간 부담이 55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오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공개하고 수소환원제철, 전기로(EAF) 확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로드맵과 그린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웠다. 현대제철은 북미 고단가 시장 공략과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투자를 추진 중이다.

윤현규 국립장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EU의 조치는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는 흐름”이라며 “유인책이 민간 선주까지 확대되면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은 기자재·인력·설계 등 생태계가 함께 돌아가야 하는 산업인 만큼, 한국·중국 수준의 기반을 유럽이 단기간에 갖추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LG전자, 인도서 ‘퓨로텍’ 혁신기술 선보인다

뉴델리 ‘플라스틱인디아’ 참가

LG전자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항공기 성능 소재 ‘퓨로텍’의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오는 10일(현지시간)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인도 최대 규모의 산업 소재 박람회 ‘플라스틱인디아’에 참가해 ‘퓨로텍’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약 80개 국가에서 32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우리 파우더 형태인 퓨로텍은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고무 등 재료를 만들 때 소량 첨가하면 미생물에 의한 악취, 오염 등을 막는 항균·항곰팡이 기능성 소재다.

LG전자가 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글로벌 제조 허브로 급부상 중인 인도에서 가전·건축자재·위생용품·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퓨로텍 솔루션을 B2B 고객에게 소개하고 신규 사업기회를



LG전자가 오는 10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인도 최대 규모의 산업 소재 박람회 ‘플라스틱인디아’에 참가해 항공기 성능 소재 ‘퓨로텍’을 선보였다.

/LG전자

발굴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차현정 기자

2025년 실적 발표

에코프로, 연간 흑자전환 성공

매출 3.4조, 영업이익 2332억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투자 성과와 메탈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서도 경영 효율화와 공정 혁신을 병행하며 수익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4315억원, 영업이익 233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3조1279억원) 대비 1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됐다. 인도네시아 제련소 투자 성과와 메탈 트레이딩 호조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사별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조5338억원, 영업이익 142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2조7668억원 대비 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를 제조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3925억원을 올렸으나 영업 손실 654억원을 냈다.

친환경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411억원, 영업이익 11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0% 줄었고, 영업이익은 52% 감소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비전, 영업이익 1823억... 52% ‘쑹쑹’

유럽·중동 등 글로벌 시장 성과

한화비전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앞세운 글로벌 시장 확장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0% 이상 크게 오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독보적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화비전 시큐리티 부문은 2025년 ▲매출액 1조3351억원 ▲영업이익 1823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52% 각각 증가했다.

이번 성과의 대부분은 한화비전의 주무대인 ‘글로벌 시장’에서 나왔다. 특히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북

미지역 외에 유럽, 중동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최근 들어 영상 보안 수요가 커진 중동지역은 전년 대비 매출이 22% 급증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140층) 부르크 아지즈 곳곳에도 한화비전의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 등 유럽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영국 보안 시장에서 한화비전은 점유율 2위(2024년 기준)를 기록했다. AI 등 최신 기술을 탑재한 한화비전 카메라는 최근 유럽 지역 공항, 항만 등 국가 주요 시설에 잇따라 투입되며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차현정 기자

대동기어, 농기계 부품社서 EV·로봇기업으로 ‘대전환’

서 대표 “올해말 수주 2.3조 확대”
2030년 매출 1조 달성 목표
EV 핵심부품 생산 설비투자
향후 공장 라인 추가 증설도
운반로봇 감속기 개발 완료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까지

대동그룹의 파워트레인 전문 계열사 대동기어가 50여 년만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EV)를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로봇기업으로 본격 탈바꿈한다.

EV 감속기 뿐만 아니라 운반로봇 감속기 개발을 끝내고 로봇 구동을 위한 핵심 장치인 액추에이터(Actuator) 개발까지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다.

회사는 지난해까지 약 1조7000억원이었던 수주잔고를 올해 연말까지 총 2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대규모 수주를 바탕으로 2030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대동기어는 1973년에 대동농기계어로 출발했다.

서중환 대동기어 대표는 지난 4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진행한 중장기 사업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선 우리를 농기계 부품회사로 보고 있다. 기존 매출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모빌리티와 로봇 신사업을 통해 성장성까지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서중환 대동기어 대표가 지난 4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회사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동그룹

매출을 연평균 39%씩 늘리고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전체 매출 중 비계열사 비중도 30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대동기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수혜주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동기어는 지난 2024년에 H사로부터 총 1조2398억원을 수주하며 향후 12년의 먹거리를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H사 2115억원, M사 854억원, A사 718억원 등 총 4605억원 규모를 새로 수주했다. 지금도 D사, H사, M사 등으로부터

변속기, 로봇 액추에이터 모듈 제조 등을 위한 수주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대동기어 사천공장에는 현재 2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1공장이 EV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기지다. 대동기어가 언론에 생산 현장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1공장 중에서도 eS&eM 아웃풋 샤프트(output shaft) 어셈블리 라인은 대동기어가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축한 핵심라인 중 하나다.

대동기어 황성현 팀장은 “아웃풋 샤프트는 감속기를 거쳐 나온 강력한 회전력을 전기차의 바퀴에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라며 “78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통해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해 연간 30만개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향후엔 120만개까지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옆에는 전기모터의 핵심 회전체인 로터(roter) 어셈블리 조립 라인도 갖추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고속회전, 고출력, 저진동·저소음 요건을 두루 충족해야 하는 만큼 로터 제조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때문에 1개 라인에서 14개 공정을 거쳐 분당 1개씩을 만드는 45m 길이의 로터 생산라인은 전체가 클린룸으로 돼 있다. 1공장 옆에 있는 2공장에선 트랙터의 심장인 트랙터 밧션을 생산하고 있다.

서 대표는 “전기차 캐즘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동화 시장의 미래는 밝다. 하이브리드차 부품 수주를 통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관리하되 전체 사업 중 전동화 비중을 60~7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M&A)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9년까지 단품 공급을 통해 레퍼런스

를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모듈과 전동화 품목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로봇 액추에이터는 대동기어가 처음으로 공식화한 사업이다.

서 대표는 “회사는 현재 운반로봇과 감속기 개발을 끝내고 검증도 마쳤다. 53년간 쌓아온 정밀 가공 노하우를 통해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소화했다”면서 “조기엔 산업형, 물류형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다음 수준은 휴머노이드형 액추에이터다. 그룹내에 계열사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AI로 보틱스 풀스택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동그룹에는 로봇 플랫폼용 AI 기술 개발, 로봇 제품 설계·개발 등을 하는 대동로보틱스와 로봇제조·공급 등을 하는 대동모빌리티가 있다.

서 대표는 “대동기어는 미래차와 로봇 핵심 부품 시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며 기존 농기계와 산업장비 파워트레인의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EV/HEV 부품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그룹의 로봇 사업과 연계해 관련 기술력을 확장해 로봇 부품 기업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천(경남)=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산업용 전기요금 낮추고 밤 요금 인상 추진

정부, 시간대별 요금제 1분기 도입
낮 수요 유도·야간 수요 억제 추진
전기로 원가 영향, 고로 조정 어려워

정부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내리고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리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철강업계에서는 고로보다 전기로를 중심으로 조업 전략 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로는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는 비중이 큰 데다 가동 조절도 상대적으로 가능하지만 고로는 연속 공정 특성상 조업을 옮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에너지 전환 업무계획에서 야간(저녁·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낮 시간대 요금 인하를 골자로 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올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낮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유도해 출력 제약으로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밤 시간대에는 수요를 억제해 전력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상·인하 폭은 아직 미공개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0~185원 수준이며, 현행 체계에서는 야간 요금이 주간보다 35~50% 저렴해 일부 전기로 업체가 심야 조업으로 비용을 절감해 왔다.

전기로는 전력을 열원으로 쓰는 구조상 원가에서 전기 비중이 커 전기요금 변동이 즉시 원가에 반영돼 요금 개편 영향이 고로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전기로는 배치 운전이 가능해 전력 단가에 따라 전력 투입·생산량을 조절하는 탄력 조업이 가능하다. 국내 전기로 업체들은 전력 비용과 수요 여건에 따라

가동 전략을 조정해 왔다. 실제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가동률을 50% 수준으로 낮춰 수요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향후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전기로 설비를 추가하면 유사한 방식의 조업 전략을 택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고로는 전기로보다 전기 사용 비중이 낮아 체감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로 중심 일관제철인 포스코는 전력의 약 85%를 부생가스 기반 자가발전으로 충당해 한전 전력 의존도가 낮다. 다만 고로는 365일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로, 가동이 멈추면 내부 용융물이 굳어 설비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시간대별 요금 조정에 맞춰 조업을 중단하거나 시간대를 옮기는 대응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경영안정 바우처’ 접수 앞두고 사전점검

소진공, 공공요금 등 고정비 납부 활용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5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25만원을 지원한다.

인 이사장은 전날 소진공 대전본부에서 오는 9일 본격 접수 시작에 앞서 실제 접수 환경을 가정한 시스템 시연을 통해 신청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접수 처리 속도와 오류 발생 가능성, 민원 대응 체계 등을 확인했다. 특히 신청 초기에 접수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비해 서버 안정성과 운영 대응 방안을 체크하고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지난 4일 대전 본부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진공

현장 대응 및 콜센터 연계 체계를 들여다봤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중요한 지원 사업인 만큼 신청 초기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음식점 등 소상공인, 배달앱 만족도 ‘낙제점’

중기부·동반위, 체감·인식도 조사
‘배달앱 3사’ 체감 점수 평균 49.1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3사’에 대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50점을 넘지 못했다.

배달앱들의 수수료 적정성에 대해선 불만족이 더욱 컸다.

음식점 등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관련 광고비만 월 평균 11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동

반성장위원회와 함께 ‘2025년 배달 3사 체감도 조사’와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를 각각 실시해 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체감도 조사는 배달앱별 입점 소상공인 각 500곳을 비대면으로, 인식 조사는 총 808곳의 입점업체를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3사의 체감도 점수는 평균 49.1점으로 50점을 채 넘지 못했다. 점수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민족이 48.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점유율 2위인 쿠팡이츠가 49.4점, 3위인 요기요가 49.5점이었다. 이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참여 대기업(236개사) 평균 점수(73.47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체감도는 ▲수수료 적정성(5개 항목) ▲거래조건(7개 “) ▲협력노력(8개 “) 3개 분야에서 총 20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실상 배달앱으로 먹고사는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3개 분야 중 ‘수수료 적정성’ 분야 점수는 평균 38.2점으로 거래조건(55점), 협력노력(50.7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호 기자

중소옴부즈만, 작년 규제어로 5344건 발굴

‘일부 수용’ 이상 1325건 달해
“현장 체감도 높이는 데 주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발굴·처리한 기업 규제어로 총 5344건이고 이 가운데 일부라도 수용, 개선된 건수가 132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굴한 규제 4건 중 1건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5년도 활동결과’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장기 미해결 핵심규제 개선 ▲민생·현장 규제에로 합리화 ▲현장밀착형 지방규제 일괄 정비에 집중 추진했다.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파급력이 큰 과제 14건을 선별해 심층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핵심규제 개선권고 2건(76개 기관)을 통해 75개 기관의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사이버침해 사고 후폭풍… SKT-LG U+ 실적 희비 갈랐다

통신사 실적 온도차

SK텔레콤 비용부담에 실적 급락
올해 AX 전략 집중해 반등 기회로
LGU+ 가입자 늘어 수익성 개선
AIDC·솔루션 기반 성장 동력 모색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의 여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실적 구도를 갈라놔다. SK텔레콤은 보안 사고 후폭풍으로 실적이 급격히 꺾인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입자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앞세워 성장 궤도를 이어가며 양사 간 온도 차를 분명히 드러냈다.

5일 두 회사의 실적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의 후폭풍을 겪은 SK텔레콤이 실적 부진에 빠진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입자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앞세워 통신 3사 간 실적 구도에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SK텔레콤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7조992억 원에 영업이익 1조73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7%, 41.1% 감소한 수치로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재무제표를 통해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당기순이익은 73.0% 급락한 3751억 원에 그쳤다. 실적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 비용과 보안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일회성 비용 그리고 인력 구조 개편에 따른 비용 지출이 꼽힌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같은 날 발표에서 연결 기준 매출 15조4517억 원에 영업이익 8921억 원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년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3.4%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성적을 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2024년 자회사 LG헬로비전의 자산손상차손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61.9%나 급증한 5092억 원을 기록해 수익성 면에서 SK텔레콤을 앞지르기까지 했다.

양사의 무선 사업 부문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됐다. SK텔레콤은 5G 가입자 1749만 명을 확보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으나 사고 직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요금 할인과 유심 무상 교체 등 마케팅 비용 부담이 실적을 짓눌렀다. 이와 대조적으로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부문(MNO)과 알뜰폰(MVNO)을 합친 전체 무선 가입회선이 3071만 개를 돌파하며 처음으로 3000만 시대를 열었다. 특히 MVNO 부문이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가입자 확대를 견인했다.

미래 먹거리인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두 회사 모두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기회였다. SK텔레콤은 가산 양주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 등에 힘입어 AI DC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34.9% 성장한 5199억 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자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성장과 신규 DBO(설계·구축·운영) 사업 진출로 AIDC 부문 매출이 18.4% 늘어난 4220억 원을 달성하며 기업인프라 사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SK텔레콤은 올해를 실적 회복의 해로 삼고 통신 전 영역에 AI를 도입하는

AX 전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킹 전 과정을 AI로 자동화하고 LTV 모델링을 고도화해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AWS와 협력 중인 울산 AI 데이터센터와 정부 소버린 AI 프로젝트 참여도 'AI 컴퍼니' 전환의 축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는 AIDC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기업 인프라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고성장을 이어온 AIDC 사업을 기반으로 DBO 영역까지 확장하며 수익성을 강화하고, 스마트 모빌리티·NW솔루션 등 B2B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해 지속 성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종석 SKT CFO는 "지난해는 고객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은 반성의 시간이 었다"며 "올해는 통신 전 영역에 AI를 도입해 재무 실적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수익성 중심의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구글 지도 반출 '중대기로'… 서류보완 촉각

지도 데이터, 경쟁력 가르는 핵심 자산
국내 플랫폼 업계, 경쟁구도 급변 우려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과 관련한 보완서류를 제출할지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심사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제출 결과에 따라 서비스 확대 여부와 국내 플랫폼 업계 파장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5일 IT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추가 보완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 안보와 위치 정보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차세대 플랫폼 산업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구글은 현재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



구글 본사 전경. /구글

일부 기능을 제외한 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길찾기 정확도와 실시간 위치 기반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모빌리티 서비스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국내 플랫폼 업계는 지도 데이

터 해외 반출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 경쟁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자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빌리티와 위치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서비스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보 문제 역시 핵심 쟁점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군사 시설이나 국가 주요 기반 시설 위치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 기준이 엄격하다. 정부는 데이터 반출 시 보안 조치와 정보 보호 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완서류 제출 여부가 향후 심사 일정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경우 정부 심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출이 지연될 경우 승인 절차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CNS, 퓨리오사AI와 NPU 기반 AI 협력

공공 AX 시장 공략

LG CNS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협력해 NPU(신경망처리장치) 기반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공공 AX 시장 공략에 나선다. 5일 밝혔다.

퓨리오사AI는 AI 연산에 특화된 NPU를 설계·개발하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다. 퓨리오사AI의 2세대 NPU 'RNGD'는 대규모 AI 서비스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는 동시에, GPU 대비 전력 소모와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LG AI연구원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LG CNS는 퓨리오사AI의 RNGD를 적용한 K-엑사원(EXAONE) 기반 AI 서비스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퓨리오사AI는 RNGD 공급과 함께 NPU 관련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AI 모델과 서비스, 인프라, AI 반도체로 구성된 소버린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공공 부문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 김태훈 부사장(오른쪽)과 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가 AI인프라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CNS

에 적합한 AX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력의 첫 단계로 LG CNS는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의 구동 인프라에 퓨리오사AI NPU를 적용해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에이전틱 AI는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고성능·고효율 인프라가 요구되며, 양사는 NPU 기반 인프라를 통해 전력 효율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넥서쓰, AI 커뮤니티 접목 게임 공개

이용자 참여형 제작 구조 실험

넥서쓰는 5일 자체 AI 커뮤니티 플랫폼 '몰트북'을 활용한 신작 게임 2종을 공개하며 AI 기반 콘텐츠 제작 모델을 본격화한다.

몰트북은 이용자가 콘텐츠 제작과 아이디어 공유에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넥서쓰는 이를 게임 개발 과정과 연동해 이용자의견과 데이터를 반영하는 참여형 개발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게임은 AI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생성과 플레이 경험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용자 활동 데이터를 게임 시스템에 반영하는 구조를 통해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AI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을 게임 개발과 직접 연결하는 시도가 이용자 참여도를 높이고 장기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평가한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D2SF AI스타트업 발굴 속도

네이버의 스타트업 투자 조직 D2SF는 AI 스타트업 반달AI와 시냅스AI에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반달AI는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미지와 영상 제작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기업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시냅스AI는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엔터, 삼성 라이온즈 MD 만든다

스포츠 콘텐츠 사업 확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프로야구 구단 삼성 라이온즈와 MD 상품 협업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스포츠 콘텐츠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스포츠 팬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상품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다. 카카오엔터는 자사 IP 기획·제작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굿즈와 협업 상품

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팬 경험을 강화하는 콘텐츠형 MD 개발에 집중한다.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캐릭터,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브랜드 협업 전략을 추진한다.

스포츠 산업에서 팬덤 기반 소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참여 확대도 이어지는 추세다.

/최빛나 기자

미래에셋, 한 달새 시총 110% ↑… 증권株 최초 ‘30조 클럽’

박현주 회장, 글로벌 중심 경영혁신
스페이스X 등 혁신기업 투자 성과
증권가, 재평가 국면 진입 분석도

미래에셋증권이 시가총액 31조원을 돌파하며 증권주가운데 처음으로 ‘3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등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성과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며, 단기간에 시총이 두 배 이상 불어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보통주와 우선주(미래에셋증권우·미래에셋증권2우B)를 합산한 시가총액은 31조74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4조9860억원 수준이던 시총이 한 달여 만에 110% 넘게 증가한 것이다.

주가 상승 폭도 가파르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종가 기준 5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YTD) 주가는 107.71% 상승했으며,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180.39%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가운데 가장 가파른 주가 상승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 (원형사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증권

급등세의 직접적인 촉매는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설이다. 지난 3일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하루 만에 28% 급등했다. 일론 머스크가 관련 게시물에 “그렇다(Yes)”는 댓글을 남기면서 시장에서는 합병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미래에셋그룹은 2022~2023년 스페이스X에 2억7800만달러(약 40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캐피탈이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계열사 및 리테일 자금이 출자자(LP)로 참여하는 구조다.

증권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급등이 단순 테마가 아니라, 기존 증권주 밸류에이션 체계를 흔드는 ‘재평가’ 국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이 기존 증권주에 적용되던 PBR(주가순자산비율)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PER(주가수익비율) 기반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진단하며 목표주가를 6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그간 증권

주는 내수 중심 구조와 거래대금 변동성 등으로 PBR 중심 평가를 받아왔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이익의 지속성과 플랫폼 전략 가시성이 높아 기존 평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이 추진 중인 ‘토큰화(tokenization)’ 전략 역시 프리미엄 요인으로 부각된다. 안 연구원은 “토큰화된 금융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24시간 거래하는 ‘Everything Exchange(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래소)’ 모델은 시장 선점이 곧 유동성과 점유율로 이어진다”며 “미래에셋증권은 코빗 인수 추진과 단일 디지털 월렛 전략을 통해 전통자산·암호화폐·토큰증권을 아우르는 플랫폼 구축에 가장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로빈후드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토큰화해 하나의 앱에서 모든 자산의 거래가 가능케 하는 ‘Everything Exchange’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진행 중이며, 로빈후드가 이러한 토큰화 계획 발표 이후 PER 30~50배에서 거래됐다는 게 안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렇듯 증권가의 시각이 ‘테마 급등’에서 ‘구조적 재평가’로 옮겨가면서, 시장의 관심은 미래에셋그룹이 이러한 변

화를 실제 성장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의 창업주이자 글로벌 전략가(GSO)인 박현주 회장이 글로벌 전략 오피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제2창업’을 선언한 점은 이번 주가 재평가 흐름과 맞물린다는 평가다.

박 회장은 최근 “스페이스X와 xAI, DJI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확보한 회수금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200억달러(약 28조5000억원)를 벌여 글로벌 M&A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토큰화를 통해 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주식·ETF·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한 통합 MTS를 6월 홍콩에서 출시할 것”이라며 “미래에셋이 디지털 자산 투자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급등세에 대한 경계론도 나온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PBR이 1.6배를 넘어 실적 개선 폭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오버슈팅 상태”라며 “스페이스X 가치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코스피 여력 6000 이상… 24시간 거래 추진”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간담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전략 제시
“자본시장 선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코스피는 최소한 6000을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본시장은 대도약을 위한 전환점에서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좀비기업’ 퇴출 기조에 적극 부응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폐지 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 조직·인력을 보강해 한계기업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AI 등 첨단기술 맞춤형 상장을 촉진하고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지원한다. 성장자금 적시 조달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코스닥 기업 분석보고서 확대와 더불어 비상장기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점진한다. 이를 위해 코스닥 분부 조직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인력의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하고 공시 가이드라인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4시간 거래체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관련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6월을 목표로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과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을 신설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파생시장 24시간 거래와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영문공시 의무 조기 시행 등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도 함께 전개한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짚고,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시간 확대 흐름에 대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는 16시간 거래를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나스닥과 함께 24시간 거래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런던, 홍콩거래소에서도 24시간 거래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나스닥 발표를 보면 지난해 정규시간 이외의 거래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통계를 보면 미국 투자자들이 20%, 해외투자자가 80%에 달한다. 그 80% 중 한국 투자자가 50%를 차지한다”며 “거래소 간 글로벌 경쟁은 심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체거래소(ATS) 등과의 동등한 경쟁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거래시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시간 연장안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방적 강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증권업종 노조들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조와의 협의가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거래소 업무 전반에 AI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인텍스 비즈니스 역량을 발전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현재 해외에서만 거래되던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도입하고, 위클리 옵션 등 신상품 및 배출권 선물 상장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파생시장 30주년을 맞이해 파생상품 투자자변 확대, 해양·금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에 나섰다. 인재육성 등 사회공헌 사업도 수혜자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최우형 “케이뱅크, SME·플랫폼 사업 확대”

〈케이뱅크 은행장〉

간담회 통해 IPO 전략·비전 밝혀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해 이전 대비 공모가를 낮추고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조정하는 등 주주 친화적 공모 구조를 마련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케이뱅크의 최우형 은행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뱅크 상장을 통해 SME(개인사업자·중소기업) 시장 진출과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디지털 자산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하겠다”며 “대한민국 금융 혁신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삼수생인 케이뱅크가 제시한 주당 희망 공모가는 8300~9500원. 공모 희망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1.38~1.56배로 이전 공모 시점 대비 약 20% 낮췄다. 공모 주식 수는 6000만주다. 지난번 IPO 때보다 주당 희망 공모가(9500~1만2000원)와 공모 주식 수(8000만주) 모두 낮아졌으며, 공모 금액은 희망 밴드 상단 기준 5700억원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3조3672억~3조8541억원으로, 지난 상장 추진 때 목표치였던 5조원보다 1조원가량 몸값을 낮췄다. 코스피가 5300을 넘기는 등 주식 시장이 활황이지만 가격과 공급 물량을 내려 수요예측 흥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공모가 확정은 12일, 일반 청약은 20~23일 이틀간 진행된다.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 대표 주관을 맡았으며 신한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한다. 상장 예정일은 3월 5일이다.

케이뱅크는 상장 이후 확보한 자금으로 SME 금융과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대출 중심 포트폴리오를 기업대출로 넓혀 2030



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케이뱅크 IPO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뱅크의 상장 후 사업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케이뱅크

년까지 가계와 SME 비중을 5대5로 맞추겠다는 목표다.

케이뱅크는 2025년 말 기준 고객 1553만명, 여신 잔액 18조4000억원, 수신 잔액 2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28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도 순이익 1034억원을 냈다.

케이뱅크는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도 추진한다. 주식·채권뿐 아니라 가상자산, 금 등 대체투자 상품군을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결제 협력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가 핵심 동력이었던 만큼 의존도는 과제로 꼽힌다. 가상자산이 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지급한 이자 비용은 2023년 95억원에서 2024년 567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최 행장은 “케이뱅크의 예금 기반은 꾸준히 성장 중이고, 업비트 예치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2조~8조원 사이에서 변동한다”며 “기초 체력이 탄탄해 업비트 자금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올해 車 산업에 4645억 투입

자율주행·전기차 기술개발 ‘총력’

산업부, R&D·기반구축 사업 공고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 중점 육성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확대하기로

정부가 올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총 4645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R&D) 및 기반구축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자동차 분야 R&D에는 총 3827억 원이 배정되며, 이 가운데 1044억 원은 44개 신규 과제에 투입된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72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3년 연속 700억 달러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지만,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 진화, 친환경 규제 강화로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기존 플랫폼 방식에서 벗어나 E2E(End-to-End) AI 자율주행으로의 기술 전환에 대응한다. 산업부는 495억 원 규모로 14개 신규 과제를 지원해 멀티모달 기반 상황인지 기술, 국가표준 기반 SDV 시스템, 오픈소스 기반 AI-SDV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을 중점 육성한다. 완성차·부품·소프트웨어·AI 기업 70여 개가 참여하는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미래차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분야에는 548억 원을



산업통상부가 올해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등에 4645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

투입해 3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질화갈륨(GaN) 기반 고집적 전력변환 시스템, 차체 일체형 배터리 시스템(CTC), 1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구동 시스템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또 세계 시장에서 승용차 대비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상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액체수소 저장시스템을 적용한 대형 수소트럭과 수소엔진 기반 상용차, 상용차용 하중 분산용 구동기(액추에이터) 국산화 등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R&D 성과의 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2개 과제에 70억 원을 지원하고, 연구성과물을 지방정부의 공공차량 수요와 연계해 실증과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부품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기반구축 사업에도 818억 원을 투입한다.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에 따라 지역 거점별 특화 전략을 반영한 신규 기반구축 사업 7개(116억 원)가 새로 추진된다.

이날 공고된 신규과제 중 R&D는 산업기술 R&D 연구자 지원 시스템(srome.keit.re.kr), 기반구축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상세내용과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래차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미래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I 탑재한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하고 답변

권익위, 4개 기관 시범 운영
빈발·중복 민원 일괄 처리

국민신문고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처리·분석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AI가 이해해 답변을 추천하고, 유사 민원을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의 일환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 개시를 알리며 주요 추진 내용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익위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7

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 핵심 기능은 ▲AI 민원답변 추천 ▲빈발·중복 민원 일괄 처리 ▲AI 기반 민원 분석 등이다.

이번에 개시되는 AI 서비스는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4개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AI 민원답변 추천’ 서비스가 제공된다. AI가 관련 법령과 기존 민원 사례, 업무 매뉴얼 등을 분석해 답변 초안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검토·보완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배달 오토바이 전기로 바꾼다

10년 내 전기 60%·내연 40%로

정부가 향후 5년 내 배달업계 전기 오토바이 보급 비중을 25%까지 끌어 올린다. 신규등록 4대 중 1대는 전기 오토바이로 대체한다는 것. 또 10년

뒤 배달오토바이 구성비 목표를 전기 모터 60%·내연기관엔진 40%로 설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내걸고, 관련 업

계와 보급 확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새로 신고된 오토바이(배달용 포함) 총 10만4848대 중 전기오토바이 비중은 9.7%(1만137대) 수준이다. 90% 이상이 내연 방식의 엔진이다.

기후부는 이날 경기 하남 소재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주요 업체와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청정바다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해수부, 어구관리 기록제 등 신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어구 관리 기록제 및 유실어구 신고제가 신설된다. 아울러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기본계획(2021~2030)’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해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변경계획수립에 앞서 해수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2018~2024년) 해양폐기물 발생량

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만6000톤(t)부터 2023년 18만4000t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우선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늘린다.

또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의 시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IAT, 20억 투입해 소·부·장 맞춤 지원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등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3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 애로 해소부터 양산 성능 검증, 제품 신뢰성 확보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이다.

KIAT는 5일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 애로를 공공연구소가 멘토링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IAT는 올해 총 14개 과제에 약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부장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돕기 위해 심화기술지원 AX 분야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시제품 개발 이후 실제 수요처 납품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급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기업의 생산 라인에서 제품 성능을 직접 평가·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6년 신규 예산은 총 229억 원이며, 디지털 복제물(디지털 트윈)을 구축·활용한 성능 평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해 제품 신뢰성 향상에 필요한 시험·검사·분석 서비스를 연구개발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속·화학·섬유·세라믹전자·기계자동차 등 5개 분야, 36개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우리 농산물 적극 소비해 달라”

〈농림식품부 장관〉

한식문화공간 찾아 선물세트 홍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리 농식품으로 꾸러진 명절 선물세트 홍보에 직접 나섰다. 그는 5일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찾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이 이날 현장에서 살핀 ‘설빔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는 농업의 가치를 담고 있다. 프리미엄과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된 5개 카테고리·30개 제품으로 구성된다. ▲콩 가공제품 ▲청년 생산제품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곡물 등이다.

특히, 판로 확대를 모색 중인 콩 가공제품과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비롯해 농가와의 상생과 미래 농업의 비전을 함께 담아 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로 우수성이 검증된 우리술을 엄선해



송미령(왼쪽 2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해 국내산 농식품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생산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설빔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 선택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각 기관과 단체에서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서울, 85억 투입해 ‘글로벌 넘버원 마이스 도시’ 도약 본격화

‘2026 마이스 육성계획’ 발표

국제회의·인센티브 관광유치 강화
최대 2억8000만원 인센티브 지원
‘애프터 비즈니스’로 블레저 확대

서울시가 11년 연속 ‘세계 최고 마이스(MICE) 도시’ 위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머신러닝 컨퍼런스와 세계폐암학회 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발판으로 올해 85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넘버원 마이스 비즈니스 도시’ 도약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5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이스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과 견인을 목표로 ‘2026년 서울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마이스 참가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동반한 일반 출장자까지 타겟을 확장한 블레저 관광 확대 ‘서울 마이스플라자’ 위케이션센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와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2024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

/서울시

년 국제회의의 개최도시 세계 3위에 오른 글로벌 위상을 바탕으로 대형 국제회의, 인센티브 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울의 전략 산업과 연계성 높은 의학, 공학, 과학, 경제 분야 국제회의의 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최대 2억8000만

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설립한 마이스 민관협력체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 회원사와 공동 세일즈로 미주·유럽 마이스 전문전시회에 전략적으로 참가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중화권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 집중 마케팅

과 특별 지원도 병행한다.

대표 전시회·국제회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본격화한다. 서울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전시회는 최대 8000만원 직·간접적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참관객 성장물을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해 국제회를 촉진한다.

또한 서울 기반 국제회의(S-BIC)를 발굴, 육성해 서울에서 고정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한편 ‘서울관 CES’, ‘서울관 다보스포럼’ 같은 글로벌 대표 마이스 브랜드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비즈니스 방문객 체류 연장과 소비 확장을 위한 블레저(Bleisure, 비즈니스+레저)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 애프터 비즈니스(SEOUL, After Business)’ 프로그램을 도입, 도시 경험의 설계 단계부터 반영한다.

지난해 10월, 강서구 마곡동에 문을 연 ‘서울 마이스플라자’는 올해부터 ‘서울위케이션(Work+Vacation)센터’ 기능을 추가해 장기체류 비즈니스 관광객을 정밀 공략기로 했다. 또 마곡 R&D·의료 클러스터, 김포공항 접근성과 연계

해 해외 바이어 미팅, 기술 데모데이, 글로벌 임원 라운드테이블 등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의 폭도 넓힌다. 관광·마이스 기업지원센터 상담 분야를 특히, 투자, 홍보 등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마이스 운영 표준인 ‘서울형 마이스 ESG 2.0’ 가이드라인을 정책 전반에 적용한다.

시는 또 마이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를 포함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예산 및 인센티브 설계, 정책 개선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이스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유망 분야이자 핵심 산업”이라며 “비즈니스 관광객이 일과 휴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서울’을 세계인이 가장 먼저 찾고 싶어 하는 ‘글로벌 넘버원 마이스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연세대 미래·한양대 ERICA 교원양성 폐지

교육부,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E등급 3곳 기능 폐지, 총 3000명 감원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ERICA, 협성대가 2027학년도부터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된다. 서울시립대, 전남대, 수원대 등 22개 대학은 교원양성 정원의 50%가 줄어든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진단 결과는 2027학년도 교원양성 정원 조정

에 반영된다. 이번 진단에서 일반대 교직과정에서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ERICA, 협성대가 E등급을 받아 폐지 대상이 됐다. 서울시립대, 수원대, 우석대, 전남대와 함께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충남대 등은 D등급으로 정원의 절반이 감축

된다. 등급별 조치 기준에 따라 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되고, D등급은 정원의 50%, C등급은 30%가 감축된다.

A등급과 B등급은 모두 정원 감축 대상은 아니지만 평가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A등급 대학은 우수 사례 확산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B등급 대학은 지표 보완과 컨설팅 중심의 후속 관리가 이뤄진다.

사범대학 부문에서는 A등급에 건국대, 고려대, 상명대, 서울대, 성신여대, 인하대, 동국대 등 27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B등급에는 경북대, 성결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18개 사범대학이 포함됐다. 사범대학 부문에서는 C·D·E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없었다.

일반대 교육과에서는 일반대 교육과에서는 A등급에 덕성여대, 순천향대, 삼육대, 호서대 등 49개 학과, B등급에 가

천대, 경기대, 안양대 등 36개 학과가 포함됐다. 광신대 유아교육과, 동국대 WISE 수학교육과 등 4개 학과는 C등급을 받았다. 이 부문에서도 D·E등급을 받은 학과는 없었다.

교육대학원 부문에서는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등 7개 대학이 A등급, 경희대, 국민대 등 29개 대학이 B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27개교, D등급은 부산외대와 울산대 등 2개교로 나타났다며 E등급은 없었다.

1급 양성과정 부문에서는 대전대가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고, B등급 17개교, C등급 16개교, D등급 9개교로 분류됐다. 이 유형에서도 E등급은 발생하지 않았다.

교육대학(교대) 부문에서는 제주대가 A등급을 받았다. 다른 교육대학은 2024년 별도 진단을 받아 이번 결과에는 제주대만 포함됐다.

/이현진 기자

경기, 난방 취약계층에 긴급 난방비 지원

기초수급·차상위 가구당 5만원

경기도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도내 난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약 34만 가구와 노숙인 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현금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

도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김 지사가 지난 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도민이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 가시적 조치로 평가된다.

지원은 먼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



경기도청 전경

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 등 총 약 34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한파에 직접 노출된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노숙인 시설 17곳에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상명대-단눈치오대, 한국어 교육 활성화

키에티 현지서 협정 체결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는 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이탈리아 키에티에서 단눈치오 키에티 페스카라 대학(d’Annunzio Chieti-Pescara University)과 한국어 교육에 관한 상호 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단눈치오대학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종희 상명대 총장, 이준영 대외협력처장, 김태한 교무처장, 김지현 문화예술대학장, 박경락 총장실 팀장, 이태희 대외협력팀 과장이 참석했다. 단눈치오대에서는 리보리오 스투피

아(Liborio Stuppia) 총장, 피에르 루이지 싸코(Pier Luigi Sacco) 국제관계부 총장, 마르셀로 코스탄티니(Marcello Costantini) 에라스무스 부총장 등이 자리했다.

양 대학은 협약을 통해 상명대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의 단눈치오대 분원 설치, 한국어 강사 파견, 한국어 교재 개발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2026학년도부터 공동 썸머스쿨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명대가 친환경도시 건축과 경영경제학 분야 커리큘럼을 설계해 단눈치오대에 제안하고, 올여름 약



이탈리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김종희 상명대 총장(오른쪽)과 단눈치오 대학 리보리오 스투피아(Liborio Stuppia) 총장(왼쪽).

/상명대

20명의 단눈치오대 학생이 상명대에 파견돼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이현진 기자

양주 장흥~광적 ‘부곡터널’ 먼저 연다

국지도 39호선 1.0km 구간 6일 개통

경기도는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석현리를 잇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구간 가운데 부곡터널(332m)을 포함한 1.0km 구간을 6일 우선 개통한다. 이번 부분 개통은 전체 공사 완료전이지만 부곡터널만이라도 우선 개방해 기존 고비골 고갯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와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도로이용전 사전 점검을 통해 과속 방지턱, 중앙분리대 등을 보완 설치했다. 개통 구간은 홍죽산업단지를 비롯한

검준·은남산업단지 등 양주 서북부 지역 산업 현황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잇는 핵심 길목이다. 터널 개통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이동시간이 2분 줄었으며, 물류·통행 차량의 사고 위험률을 낮출 수 있고, 운송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구불구불한 길이 직선으로 바뀌면서 안전한 통행 환경 확보와 기산저수지 등 주변 관광지와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등 주민 교통 편의 향상과 관광 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배달앱 3社, 장보기 시장 정조준 제휴·협업 등 ‘생활플랫폼’ 새판

음식배달 중심 사업구조 정비
‘성장세 유지·미래고객 확보’ 포석
“퀵커머스 경쟁 더 치열해질 것”

음식 배달 시장을 놓고 경쟁하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에 플리케이션(앱) 3사가 전선을 장보기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음식 배달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느낀 플랫폼들이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마트 등을 경쟁적으로 입점시키며 ‘퀵커머스(즉시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배달의민족은 국내 편의점 4사(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를 모두 입점시킨 데 이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더프레시·이마트 에브리데이 SSM 3사, 그리고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홈플러스까지 품으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 대다수를 앱 안에 넣었다.

요기요 역시 만만치 않다. 편의점 4사와 모두 협업 중이며, SSM 중에서는 GS더프레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확보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의 추격도 매섭다. 최근 이마트24 입점을 완료하며 GS25, CU와 함께 편의점 3사가 입점했다. 세븐일레븐과도 연내 입점을 목표로 협의 중인 가운데, SSM 2사(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확보하며 배민을 바짝 뒤쫓고 있다.



지난해 8월 GS25와 GS더프레시가 쿠팡이츠 쇼핑에 입점한 모습. /GS25

특히 쿠팡이츠의 성장세는 쿠팡의 부진과 대조를 이루며 더욱 두드러진다.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2025년 Z세대 리테일 결제 동향’에 따르면, Z세대가 가장 자주 결제하는 곳은 편의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Z세대의 월평균 결제 횟수 1위는 GS25(4500만회), 2위는 CU(4400만회)가 차지했다. 이는 배달의민족(1600만회)이나 쿠팡이츠(830만회)의 결제 빈도를 압도하는 수치다.

배달앱 입장에서 Z세대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편의점을 앱 안으로 끌어들이므로 앱 접속 빈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음식 배달 등 다른 서비스 이용까지 유도하는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음식 배달만으로는 소비자를 붙잡아두기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Z세대가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이들을 잡기 위해 편의점 및 마트와의 제휴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래픽과 접근성을 활용해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실리적인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자체 앱만으로는 신규 고객 유입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배달앱이 이토록 장보기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성장세 유지와 미래 고객 확보에 있다. 특히 미래 핵심 소비층인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2025년 Z세대 리테일 결제 동향’에 따르면, Z세대가 가장 자주 결제하는 곳은 편의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Z세대의 월평균 결제 횟수 1위는 GS25(4500만회), 2위는 CU(4400만회)가 차지했다. 이는 배달의민족(1600만회)이나 쿠팡이츠(830만회)의 결제 빈도를 압도하는 수치다.

배달앱 입장에서 Z세대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편의점을 앱 안으로 끌어들이므로 앱 접속 빈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음식 배달 등 다른 서비스 이용까지 유도하는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음식 배달만으로는 소비자를 붙잡아두기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Z세대가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이들을 잡기 위해 편의점 및 마트와의 제휴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신세계百貨, 가방 등 신학기용품 40% 할인

22일까지 ‘뉴 챗터, 뉴 룩 페어’ 행사

신세계백화점이 저출생 기조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는 아동 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신학기 행사를 연다. 신세계백화점은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전국 13개 전 점포에서 신학기 맞이 ‘뉴 챗터, 뉴 룩 페어(New Chapter, New Look Fair)’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MLB키즈, 캥글키즈,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등 국내외 인기 아동·스포츠 브랜드 50여 개가 참여해 의류, 가방, 신발 등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 MZ세대 부모들의 취향을 반영해 트렌디한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대폭 강화했다. 강남점에서는 ‘마르디메르디 레쁘띠’와 신학기 백팩 팝업을 운영하며, 센텀시티점과 대구점에서는 각각 S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2일까지 ‘뉴 챗터, 뉴 룩 페어’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NS 인기 브랜드인 ‘메론스위치’와 ‘스쿨더키피스’ 팝업을 지역 최초로 선보인다.

풍성한 구매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신세계백화점 앱 푸시 알림 수신 고객에게 아동 브랜드 1만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19일부터 4일간 제휴 카드로 구매 시 금액대별로 최대 7%의 신백 리워드를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롯데아울렛·롯데몰, 홀리데이 무브 페스타

풍성한 쇼핑혜택… 체험형 이벤트도

롯데아울렛과 롯데몰이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겨냥한 ‘홀리데이 무브 페스타(Holiday MOVE Festa)’를 통해 풍성한 쇼핑 혜택과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마지막 겨울 수요를 잡기 위해 ‘아웃도어 윈터 F·W 라스트 찬스’ 행사를 연다. 살로몬, K2, 스노우피크 등 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블랙야크와 컬럼비아는 아우터 특가 상품을 내놓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롯데카드로 아웃도어 상품을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병행한다.

신학기 준비를 위한 키즈 특가전도

마련됐다. 네파키즈, MLB키즈 등은 책가방을 최대 30%, 겨울 아우터를 최대 50% 할인한다. 기흥점과 의왕점에서는 각각 나이키 키즈와 뉴발란스 키즈의 대형 이월 상품전이 열린다.

이 외에도 뉴발란스, 다이닛 등 스포츠 브랜드와 골프존마켓 등 골프용품 할인전이 진행되며, 삼성물산과 한섬 등 국내 대표 패션 그룹의 브랜드도 추가 할인 및 상품권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썰리 침대와 주방 식기 브랜드 등 라이프스타일 상품군도 특가에 만날 수 있다.

명절 분위기를 돋을 체험형 이벤트도 풍성하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에서는 14일부터 22일까지 전통 민속놀이 체험존과 인디밴드 공연이 펼쳐지며, 롯데몰 동부산점에서는 18일 롯데월드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손종욱 기자

대형마트, 설 선물 본판매… 키워드 ‘실속·할인’

이마트 행사카드 최대 50% 할인
롯데마트 과일물량 절반 가성비 상품
홈플러스 최대 250만원 상품권 증정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가 오는 7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나선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전예약 기간 동안 입증된 가성비 트렌드를 본판매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5만~10만원대 실속형 상품군을 대폭 강화하고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걸었다.

이마트는 7일부터 설 당일인 17일까지 11일간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사전예약(전년 대비 +18.3%)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실속세트 판매에 집중한다. 행사 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혜택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상품 구성은 실속과 가성비를 중심으로 했다. 과일은 설 제철인 ‘만감류 혼합 세트’와 4만원대 ‘상주곶감 혼합 세트’ 등을 준비했으며, 축산물은 10만원대 ‘직경매 암소 한우 풍족 세트’ 물량을 지난 설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수산물 역시 4만원대 ‘민어굴비 세트’와 ‘9+1’ 덩어리가 있는 제주 옥돔·갈치 세트 등을



롯데마트 선물세트가 판매되는 모습. /롯데마트

로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인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전 점포에서 본판매를 시작한다. 롯데마트는 소비 양극화 트렌드를 반영해 5만원 미만 ‘가성비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 설보다 30% 늘리는 동시에 프리미엄 이색 상품도 함께 강화했다.

롯데마트는 과일 세트 물량의 절반을 가성비 상품으로 채웠다. 3만9900원짜리 ‘정성담은 혼합과일 8종’ 등 알뜰 상품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수산물에서는 2만원대 김 세트와 3만원대 연어 세트 등을 선보인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1+1’ 혜택을 적용해 개당 가격 부담을 낮췄다. 프리미엄 수요를 겨냥해서는 인기 셰프 최강록과 협업한 ‘외국 야끼니구 세트’와 60만원대 최고급 한우 세

트를 차별화 상품으로 내놓았다.

홈플러스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본판매를 진행하며, 전체 상품의 84%를 6만원 미만의 저가형으로 구성해 물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행사 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과 최대 250만원 상품권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홈플러스는 시세가 하락한 배선물세트 가격을 최대 43% 낮췄고, 수요가 높고 있는 사인머스켓과 애플망고 혼합 세트 가격은 동결했다. 축산 부문에서는 ‘농협안심한우 1등급 미식 스페셜 냉장세트’ 가격을 약 7% 인하해 선보인다. 홈플러스 측은 사전예약 기간 5만원대 육포(+77%)와 1만원대 양말(+41%) 등 가성비 상품 매출이 급증한 점을 반영해 본판매 가격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신제품

CJ제일제당 스팸 골드바 에디션

CJ제일제당이 지난 추석 큰 인기를 끌었던 스팸 리미티드 에디션을 다시 한번 선보인다.

CJ제일제당은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에서 ‘스팸 골드바 에디션(사진)’을 재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는 물량을 보다 넉넉하게 준비하고 행운의 ‘골든 티켓’ 당첨 인원도 30명으로 확대해 지난 추석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정판의 즐거움과 연박싱(개봉)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자사 공식몰 CJ더마켓과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마트, 코스트코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마트24 ‘두바이 스타일’ 상품 10종

이마트24가 식지 않는 ‘두바이 디저트’ 열풍에 맞춰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활용한 ‘두바이 스타일’ 차별화 상품 10종을 이달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기존 히트 상품인 ‘카다이프모지’ 2종을 포함하면 업계 최다 수준인 총 12종의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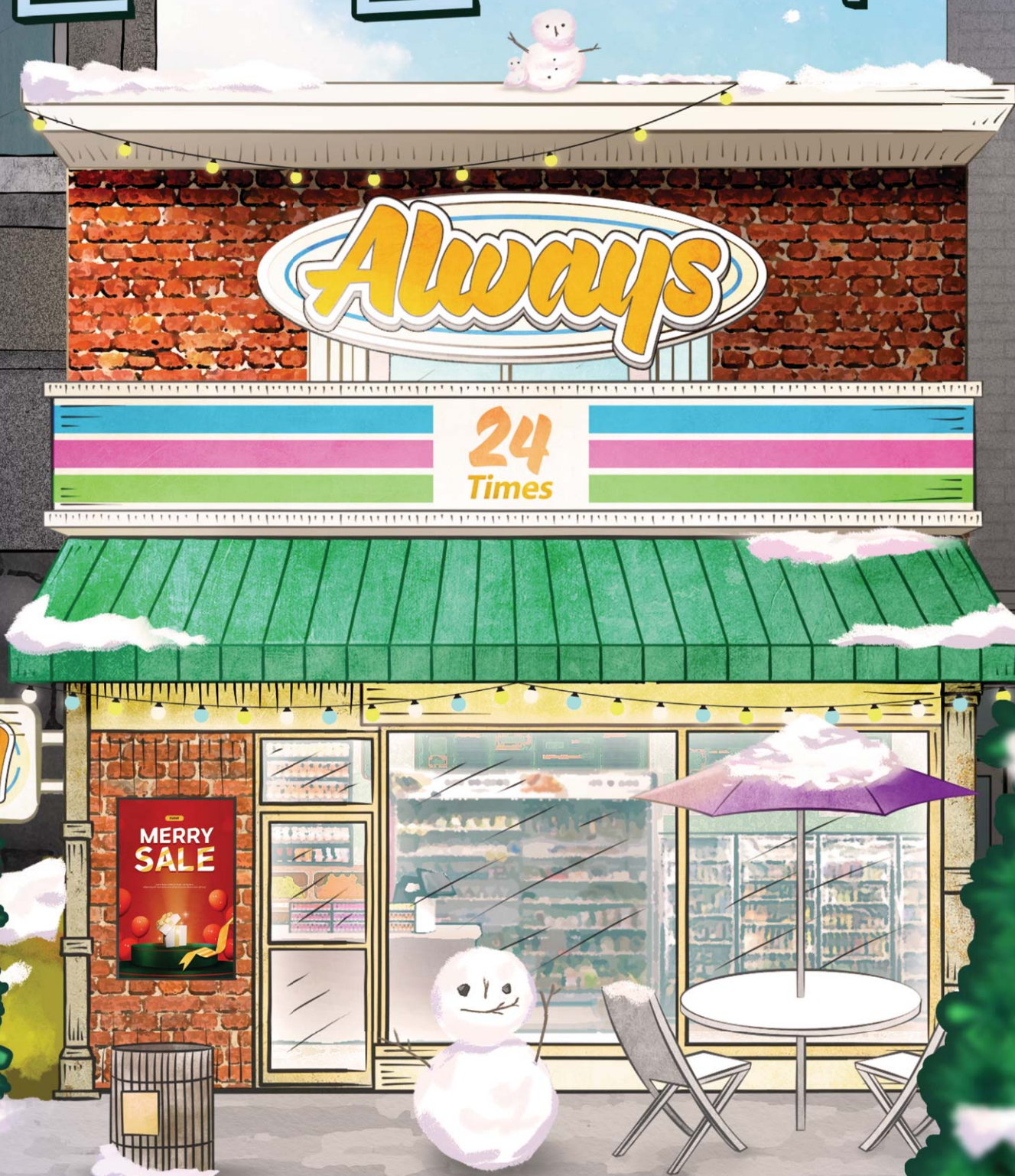
이번 신상품은 특정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샌드위치, 빵, 아이스크림 등으로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MZ세대의 취향을 겨냥해 상품명을 ‘두카크(두바이카다이프크림빵)’, ‘두카초(판초콜릿)’, ‘두카샌(샌드위치)’, ‘두헤아(아이스크림)’ 등 세 글자로 통일하는 직관적인 네이밍 전략을 도입해 재미를 더했다. /손종욱 기자

☆☆☆☆☆
라면보다 맛있고, 커피보다 따뜻한,
삼각김밥보다 **딱 찬** 우리의 이야기

뮤 직 드 라 마

불편한 편의점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사진 강상욱 | 제작PD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주최·주관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 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밀라노에 문 연 ‘삼성 하우스’… 올림픽 역사·기술 소개

대형 LED로 코르티나 설산 구현
갤럭시 XR 체험·사진전 등 선배
“선수와 커뮤니티 연결한 공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파트너 삼성전자가 스포츠와 올림픽 정신을 연결하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삼성 하우스’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 하우스’는 ‘연결’이라는 주제로 삼성의 올림픽 파트너십 여정과 올림픽과 함께 해 온 기술 혁신 스토리를 소개한다.

삼성 하우스 외부는 대형 LED로 코르티나의 설산을 구현했으며 실내에는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서 깊은 건축물인 팔라초 세르벨로니에서 진행된 ‘삼성 하우스’

/삼성전자

선수과 방문객이 휴식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 갤럭시 XR 체험, 역대 올림픽 예

디션 전시, 출전 선수들의 열정과 각오를 담은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전 등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오른쪽 4번째)이 5일 경기 양주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최석훈 사단장(가운데)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노용석 중기부 1차관, 25사단 위문금 전달

부대 찾아 국군 장병들 격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최전방 부대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이 5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제25보병사단’을 방문,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격오지 근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방위 임

무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마련했다.

노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해 세계 수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바탕으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국군 장병 덕분”이라면서 “이번 위문금이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작은 보탬과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농심 “‘먹플루언서’ 도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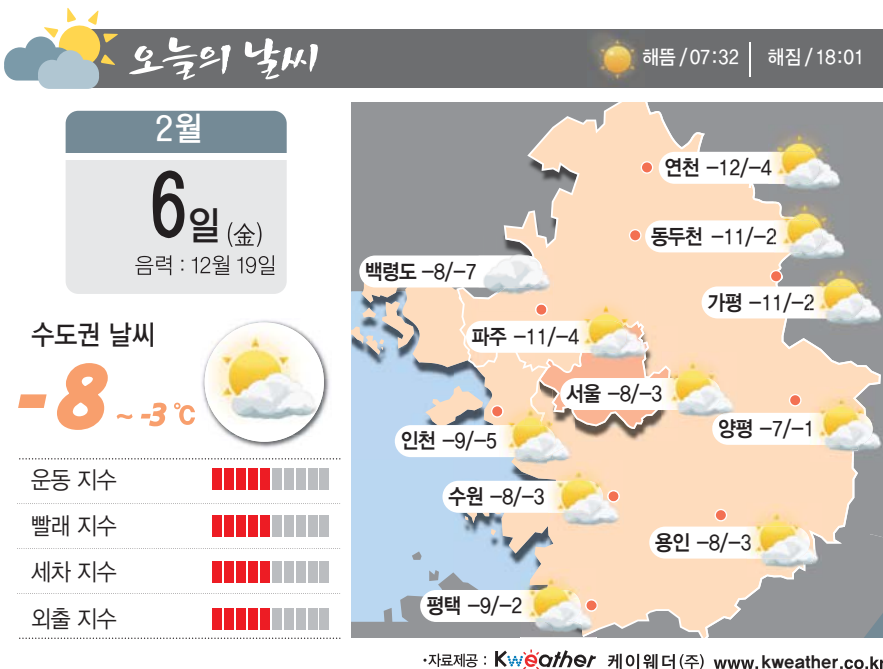
푸드 전문 숏폼 크리에이터 양성

농심이 오는 18일까지 푸드 전문 숏폼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 ‘먹플루언서’ 7기 33명을 모집한다. 농심 먹플루언서는 농심이 지난 2023년부터 식품업계 최초로 시작한 숏폼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이며, 숏폼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SNS 이용자라면 누구나 신

청할 수 있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AI 활용 콘텐츠 제작법, 커머스 특화 교육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숏폼 제작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을 포함해 다양한 농심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받고, 농심의 체험형 마케팅에 우선 참여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HD현대, 협력사 대금 5800억 선지급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HD현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총 580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조선(HD현대중공업·HD현대산호)에서 약 3440억원, 건설기계(HD현대사이틀솔루션·HD현대건설기계)에서 약 108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계열사별로는 HD현대일렉트릭 830억원, HD현대마린솔루션 200억원, HD현대마린엔진 190억원, HD현대로보

틱스 50억원 규모다.

HD현대는 명절 이후 지급되던 자재대금을 최대 3주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설을 앞두고 귀향비·상여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HD현대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기 지급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안성호 대표, 성남시에 2억 상당 쌀 기부

〈에이스침대〉

28년간 누적 기부량 16만 7760포

에이스침대가 이웃을 위해 30년 가까이 쌀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쌀값 상승에도 기부 물량을 더욱 늘리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은 안성호 이사장 겸 에이스침대 대표(사진)가 설을 맞아 2억 1000만원 상당의 백미(10kg) 7500포를 성남시에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기부한 쌀은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생



활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에이스경암은 199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쌀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명절만큼은 그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28년간 누적 기부량은 총 16만 7760포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2억 3000만원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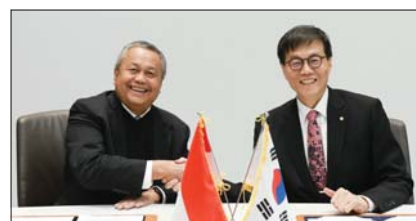
/김승호 기자

한은-인니 중앙은행, 통화스왑 5년 연장

교역 결제 안정·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원·루피아 통화스왑 계약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교역 결제 안정과 금융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5일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와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원·루피아 통화스왑 계약을 2026년 3월 6일부터 2031년 3월 5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10조 7000억원·115조 루피아까지 상호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왼쪽)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루피아 통화스왑 계약을 5년 연장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번 연장의 특징은 ‘기간’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왑 계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확대했고 만기 도래 시에는 양자 합의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효성, 백혈병소아암협회에 지원금 전달

효성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본사를 찾아 소아암 환자 지원을 위한 지원금 3000만원과 헌혈증 322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왼쪽부터)이정원 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 허인영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

/효성



LX판토스, 10년째 서울대어린이병원 후원

LX판토스는 지난 4일 서울 종로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후원 10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취약계층 환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LX판토스 맹운주 경영지원담당(왼쪽)과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X판토스



한국타이어, 간담회 열고 파트너사 소통

한국타이어는 지난 3일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사업본부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표이사 안종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가운데)과 임직원 및 국내 딜러사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



광주銀-LG엔솔, 재생에너지 입찰 참여

광주은행은 LG에너지솔루션과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공동 참여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형식 LG에너지솔루션 전무(왼쪽)와 박대하 광주은행 신성장전략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OCI홀딩스, 취약계층 쌀 125포대 기부

OCI홀딩스는 4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쌀 125포대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차정환 OCI홀딩스 대외협력실 상무(오른쪽)와 우경숙 성북동 주민센터 동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OCI홀딩스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인사(전보) △주택정책관 장우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단장급 승진 △사업지원단장 김진상 △AI반도체·SW 단장 황호선 △국방·보안단장 김영진

다주택자의 시간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8만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14.9%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언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 퇴로’라며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4년째 유예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양도소득세 중과 등)를 오는 5월 9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재산권 침해’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과 보유한 만큼의 세금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는 ‘시장 질서’라는 상식의 문제다. 주택이 거주的手段이 아니라 투기의 도구로 이용된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주택 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르다. 공급은 한정돼 있고, 내집마련 수요는 여전하다. 부

동산 시장에서 돈이 많은 소수가 여러 채의 주택을 선점하면, 가격은 왜곡된다. 이때 발생하는 집값 상승은 ‘보유 프리미엄’에서 나온 불로소득이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의 정당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핵심 원칙이다.

그럼에도 다주택자들은 흔히 ‘임대 공급자’라고 항변한다. 자신들이 없으면 전·월세 시장이 붕괴되고, 전·월세값이 오른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과장과 엄살에 가깝다. 다주택자의 상당수는 장기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돈 많은 부자다. 임대는 ‘버티기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정체가 되면 다시 안고 간다.

다주택자의 민낯은 위기 국면에서 더 뚜렷해진다.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막히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외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반대로 집값이 오를 때는 시장 논리를 앞세워 개입을 비판한다.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려는 욕심이다. 물론 모든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상속이나 생계형 임대 등 예외도 있다. 따라서 과세 정책은 정교해야 한다. 보유 가구수, 보유 기간, 임대 목적, 지역별 수요 상황 등을 고려한 차등 설계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 보유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집은 국가의 인프라와 제도 위에서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이다.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면 된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는 선택의 비용을 명확히 하는 정책이다. 여러 채를 보유할 자유는 인정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면 세금과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공재를 더 많이 점유하면,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이 상식이다.

주택 시장의 정상화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공급 확대, 금융 규제, 조세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 중 세금은 가장 직접적인 신호다. 다주택 보유가 ‘유리한 게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시장의 방향이 바뀐다. 중과세는 ‘보복’이 아니라 ‘정상화’다. 시장을 겁주려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다시 시장답게 만들기 위한 장치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 이제 다주택자의 시간이다. 그들이 또 정부정책에 맞서며 ‘불패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집을 팔고 물러날 지 궁금해진다.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정근식의 ‘교육 우선론’, 정치 이념과 선긋기



기 지 수

이 현 진
(정책사회부)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화두가 있다. ‘단일화’다. 진보와 보수로 나뉜 후보군이 세를 모아야 한다는 논리도, 표가 분산되면 진다는 계산도 익숙한 풍경이다.

그런데 서울교육의 수장인 정근식 교육감이 이번 진보 진영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붙었다. 일부 후보들은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는 정말 당연한 전제인가.

정 교육감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교육

은 정치 논리의 연장이 아니라, 교육 자체의 가치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영 구도에 자신을 가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단일화 불참은 돌출 행동이라기보다 그간의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선택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이유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물론 현실 정치의 선택을 모르는 바 아니다. 표가 나뉘면 상대 진영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단일화는 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현장의 흐름은 더 복잡하다. 서울 지역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4일을 후보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정근식 교육감은 “신학기 학교 훈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등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일

부 예비후보들은 “민주적 절차 훼손”이라며 반발했고, 일정 연기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하지만 그 책임이 시민의 선택권을 좁히는 방식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린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장기전이다. 그래서 교육을 일러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은 5년을 보지만 학교는 10년, 20년 뒤를 바라본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육감만큼은 정치적 거래가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길 원한다. 정 교육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 과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완전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결과를 단순히 ‘단일화 실패 탓’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었다.

/lhj@

김상회의四季

인생유전의 아이러니



앞선 글에서 나혜석과 최린을 소환하다 보니 또 하나 떠오르는 얘기가 있다. 일제의 치하에서 일본인들보다 더 악랄하게 일제에 부역하던 조선의 인물들이다. 오죽하면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울음을 멈추지 않던 아이가 ‘일본 순사’가 온다고 하면 뚝! 하고 울음을 끊는 것이다. 그 무서운 일본 순사보다도 더 악명 높게 앞잡이 순사질을 하던 자가 있었는데 신철이란 인물이다. 그는 3.1 운동 이전에 일본 경찰로 일하면서 악명이 자자했는데 그런 그에게 독립선언서 인쇄 현장이 발각되었다. 난감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나갔다고 한다. 이에 당시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인텔리로서 천도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최린은 그에게 만남을 청했다. 그리고는 간곡히 설득하며 신철에게 돈을 건네며 회유하려 했는데 그는 계획대로 하라는 말을 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오히려 3.1 운동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일본 경찰들을 엉뚱한 곳에 배치하게 했고, 이후 그는 이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진다.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애국의 마음이 있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신철에게 간곡히 회유한 자가 최린이었는데, 그는 훗날 일본에 더할 나위 없는 충직한 변절자가 된다. 193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가 되었고 1938년 조선총독부 어용 기관지인 매일신보 사장이 되고 이 외 강연회를 통해 일본이 벌이는 전쟁에 조선인 참여 독려, 중일전쟁의 미화 등 성공한 지식인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됐다. 광복 후 일제 부역자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참회했다고는 하나 만약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다면 그의 친일 매국은 계속되지 않았을까? 배운 자의 기회주의적 이기심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4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5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와인의 기준을 바꾸다… 돈 멜초, 펜폴즈 그리고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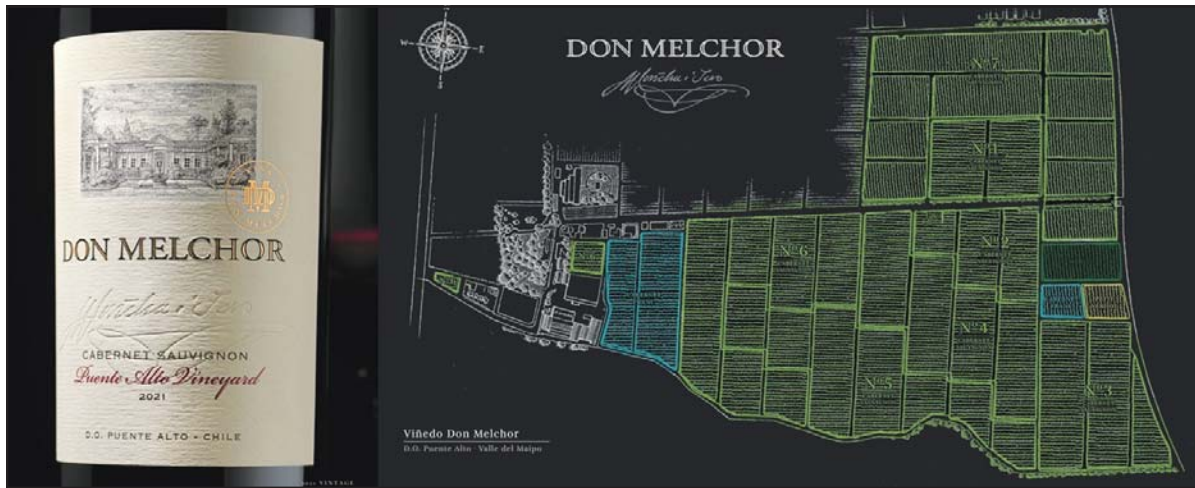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1

“수천 달러짜리 부르고뉴 와인이나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카베르네 소비뇽 컬트와인은 이제 잊어라. 와인업계 혁신가들은 단 하나의 고집스러운 아이디어로도 포도품종은 물론 와인 산지, 그리고 우리가 와인을 마시는 방식 그 자체도 바꿔버릴테니.”

세상을 바꾼 와인을 꼽으라 하면 와인 종주국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나 컬트 와인, 슈퍼 투스칸 등을 떠올리겠지만 정작 와인 지도를 다시 그려놓은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싹으로 밀어붙인 와인 메이커와 그의 손에서 태어난 와인들이었다.

포브스가 ‘세상을 바꾼 10대 와인’을 선정했다. 칠레의 ‘돈 멜초(Don Melchor)’를 비롯해 ‘두카 엔리코’, ‘브리코 델 우첼로네’, ‘클라우디 베이 소비뇽 블랑’, ‘디디에 다그노 실렉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한 알, 한 알을 소중히 여겼다. 어떤 와인은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 끝에 나왔고, 어떤 와인은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했다. 공통점이라면 이들이 와인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 멜초 2021 빈티지와 빈야드.

콘차 이 토로의 돈 멜초는 칠레 와인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와인이다. 프랑스, 아니 더 넓게는 유럽이 아닌 와인 산지에서도 프리미엄 와인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줬다.

포브스는 돈 멜초를 선정하며 “칠레 와인은 품질보다는 대량 생산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돈 멜초의 출시로 그 흐름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비나 돈 멜초의 수석 와인메이커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엔리케 티라도(Enrique Tirado)는 “돌이켜보면 이 와인을 변화의 주역으로 만든 것은 칠레에서도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전문성, 그리고 독보적인 테루아의 결합이었다”고 말했다.

돈 멜초는 칠레에서도 푸엔테 알토(Puente Alto) 포도밭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했다. 자갈 토양과 안데스의 영향으로

카베르네 소비뇽을 재배하기 최적의 곳이었다. 1984년 당시 돈 멜초의 와인메이커는 푸엔테 알토에서 재배한 카베르네 소비뇽 샘플을 프랑스 보르도로 가져가 전설적인 양조학자인 에밀 페노에게 보여줬고, 1987년에 돈 멜초의 첫 번째 빈티지가 세상에 나왔다. 보르도 양조 방식을 모델로 삼았지만 칠레 고유의 기후와 토양 특성을 고스란히 담았다.

포브스는 “오늘날에는 칠레의 많은 와인메이커들이 마이포 밸리에서 아콩카구아에 이르기까지 돈 멜초와 같이 특정 산지의 특징을 잘 살린 카베르네 소비뇽을 양조하고 있다”며 “돈 멜초는 칠레 카베르네 소비뇽을 컬렉터들이 소장할 만한 와인의 반열로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와인 전문 매체인 와인 스펙테이터는 ‘2024년 100대 와인’에서 돈 멜초 2021 빈티지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돈 멜초가 테루아의 힘으로 산지의 한계를 넘었다면 다른 와인 신세계 호주에서는 펜폴즈가 ‘그랜지(Grange)’로 품종과 양조 방식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다.

먼저 품종이다. 유럽에서 프리미엄 레드 와인이라고 하면 기본이 되는 카베르네 소비뇽을 벗어나 호주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쉬라즈 품종으로 승부했다.

양조 방식 역시 기존 프리미엄 와인이 특정 지역, 또는 더 좁게는 특정 포도밭에 한정하지만 그랜지는 여러 지역, 다양한 포도밭의 포도로 만든다. 포도가 어디서 자랐든 오직 맛으로만 평가한다는 개념이다. 포도밭의 작은 구획을 말하는 파셀 약 1000곳에서 포도를 수확해 등급을 나누고, A등급을 받은 포도만 그랜지에 쓰인다. 고유의 스타일에 맞춰 매년 최고의 포도를 골라 만든다보니 쉬라즈 품종이 가진 장기 숙성 잠재력과 복

합미는 극대화됐고, 전 세계 와인러들에게 한계를 넘어 더 창의적인 양조를 시도하게 만든 영감이 되었다.

금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돈 멜초와 펜폴즈는 기존 명성 높았던 와인들에게 강력한 자극이 되었고, 좋은 와인의 기준이 유럽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몸소 증명해 냈다”며 “이들 와인은 각자의 혁신을 통해 전 세계 와인 지도를 다시 그렸으며,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콘으로서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와인 지도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어딘가에선 펜폴즈의 쉬라즈처럼 그곳만의 국가대표 포도품종이 자라고 있고, 또 다른 와인 산지에선 어느 혁신가만의 돈멜초가 만들어지고 있을 터. 우리들의 할 일은 단 하나다. 경계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즐기면 되는 것.

/smahn1@metroseoul.co.kr



펜폴즈가 처음으로 선보인 그랜지 1951년 빈티지. /금양인터내셔널

문화 단신

영화감상에서 체험으로… 특별관·N차 관람이 대세

CGV 데이터전략팀, 영화시장 분석 지난해, 5명 중 1명 ‘특별관’ 이용 재관람 ‘N차’ 흥행 주요 동력으로

국내 영화 시장에서 특별관과 ‘N차 관람’이 흥행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 관람을 넘어 경험을 소비하는 트렌드가 본격화되면서 극장 이용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GV 데이터전략팀은 5일 2025년 국내 영화 시장 분석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CGV 방문 고객 5명 중 1명 이상이 특별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관 관람이 일부 마니아층의 선택지를 넘어 일반 관객에게도 하나의 ‘표준 경험’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별관 이용 고객의 특성도 뚜렷했다. 4DX는 10·20대 여성 관객 비중이 높았고, SCREENX와 ULTRA 4DX는 20·30대 관객 중심으로 이용됐다. 공통적으로 3인 관람 비중이 높아 개인 관람보다는 친구·연인·가족, 나아가 팬덤



CGV용산아이파크몰 4면 SCREENX.

/CGV

단위의 동반 관람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극장이 단순 상영 공간을 넘어 함께 체험하는 소비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관람을 뜻하는 ‘N차 관람’ 역시 흥행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2025년 전체 개봉작의 N차 관람 티켓 비중은 6.2%였지만, 흥행 상위 10개 작품의 경우 7.5%로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F1 더 무비’,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 등은 N차 관람 비중이 10%를 넘기며 재관람 수요가 흥행을 주도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들 작품의 N차 관람 중 특별관 이용 비중은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포맷별로 차별화된 체험이 관객의 재관람 욕구를 자극하고, 같은 콘텐츠를 반복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객층의 변화도 눈에 띈다. CGV 방문객 연령대 분석 결과 10대와 50대 이상 관객 수가 증가했으며, 두 연령층 모두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해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관객 증가는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ICEEON 등 팬덤형 멀티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예스24, 지난해 공연 티켓 판매액 30% 증가

공연티켓 판매액 5년 연속 증가세 콘서트·뮤지컬 등 전 장르 수요 확대 2030세대 70.1%, 여성관객 77.8%

2025년은 세계적인 뮤지컬의 내한 공연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국내 초연 작품,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대형 콘서트, 그리고 인기 캐릭터와 거장 작가를 조명한 전시들까지 더해지며 공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한 해였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2025년 공연 티켓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공연 티켓 판매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콘서트와 뮤지컬, 연극, 클래식, 전시 등 전 장르에서 고른 수요 확대가 나타난 점이 눈에 띄었다.

예스24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 티켓 판매액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콘서트 분야는 DAY6, 스트레이 키즈, 백현, 이찬원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전국투어와 팬미팅, 콘서트 등 대형 공연이 잇따르며 전년 대비 36.1%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월별로는 연말을 앞두고 주요 콘서트 티켓 오픈이 집중된 11월이 연중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다.

연극 분야 역시 글로벌 흥행작과 화제작이 고르게 성과를 냈다. 웨스트엔드 화제작 ‘미러’의 한국 초연과 아시아 최초 10주년을 맞은 ‘엘리펀트 송’ 등이 관객의 호응을 얻으며, 2025년 연극 분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 분야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몰입형 전시로 눈길을 끈 ‘문도 픽사: 픽사, 상상의 세계로’와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전시가 폭넓은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전년 대비 406%라는 큰 폭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

예스24 전체 티켓 구매자 분석 결과, 2030 젊은 세대가 전체의 70.1%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여성 관객 비중이 77.8%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2030 여성 관객층이 공연 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은 흐름은 2025년에도 이어졌다. /신원선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EU, 우크라이나 155조원 차관 합의…“4월초 첫 지급 목표”
▲위성락, ‘美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안보 패키지에도 영향 줄 가능성 우려” /사진 뉴시스

▲中 칭화대, 보스턴 캠퍼스 추진에 엽스타인 도 움 요청…미중 갈등으로 무산
▲트럼프 “연방 이민 단속 확대…5개 도시 유력 검토 중”

▲유엔 대테러 사무국, 이슬람국가 테러 위협 증가에 경고
▲동계올림픽 출전 러시아 선수들, 전쟁 지지 활동 드러나 논란



배달앱 3社
장보기 시장 정조준
생활플랫폼 강화
L1

metro®

Life

셀트리온
역대최대 실적
고수익 제품 호조
L2



초개인화·임베디드금융·AI ‘3축’… 수요자 중심체계 속도

2026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가 2026년 경영 키워드로 ‘속도와 실행’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객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초개인화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양 축으로 ‘에이전틱 AI뱅크(Agentic AI Bank)’ 전환과 금융사고 제로화를 병행해 생산·포용금융의 실천력과 신뢰회복을 동시에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 ‘속도·실행’ 강조… 고객전략 재정비

NH농협금융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고객전략협의회’를 열고 2026년 고객전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환경·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핵심 축은 ‘초개인화’와 ‘임베디드금융’, ‘AI 기술’이다. NH농협금융은 임직원 토의를 통해 관련 트렌드가 가져올 영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고객경험혁신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신사업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행과 제로로 끌어내는 ‘실행형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NH농협금융이 강조하는 ‘속도·실행’은 결국 고객전략을 프로그램이 아닌 ‘체계’로 만드는 작업에 가깝다. 이찬우 회장은 협의회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거듭 주문하며 실행의 속도를 다시 강조했다.

이찬우 회장은 “한 해 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계획의 수립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5대 과제’

실행의 전면에는 NH농협은행이 선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2026년 경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경영 키워드 ‘속도·실행’… 전략 정비
고객전략협의회 열고 추진방향 논의
아이디어 과제… 실행형 체계 전환

민족은행 목표로 초개인화 금융 제시
자금공급 넘어 실물경제 성장 뒷받침
지역·현장 밀착… 맞춤 솔루션 제공

금융사고 제로화로 고객신뢰 제고
AI뱅크 전환… 판단·실행방식 바뀌어야
변화 대응하는 ‘패스트 체인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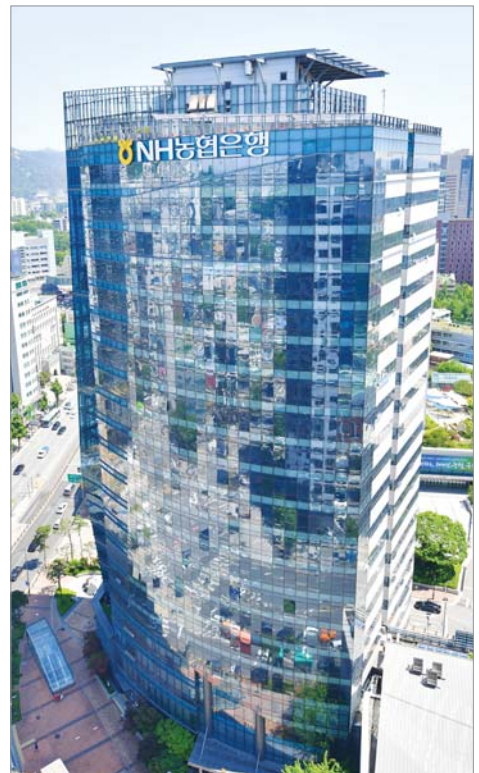
영전략 목표를 ‘고객의 미소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민족은행’으로 정하고, 초개인화 금융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고객의 자산·소비·부채를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전략을 통해 고객의 변화와 요구를 먼저 포착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축은 생산적 금융이다. 강 행장

은 금융의 역할을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실물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협은행의 강점으로 전국 영업기반과 현장 소통을 들었다. 지역·현장 접점에서 고객 상황을 가장 가까이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포석이다.

신뢰(Trust) 측면에서는 ‘금융사고 제로화’를 핵심으로 꼽았다. 강태영 은행장은 금융의 경쟁력이 성과 이전에 고객 신뢰를 지켜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상품·서비스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보보안에도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은 ‘Agentic AI Bank’로 압축된다. NH농협은행은 AI를 업무 효율도 구가 아니라 ‘판단과 실행의 방식’을 바꾸는 기술로 규정했다. AI·데이터·디지털·IT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략과 실행이 분절되지 않는 AX 통합 추진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현장 데이터와 경험이 AI 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



NH농협은행.

들겠다는 목표다.

강태영 은행장은 “2026년 경영전략 목표를 고객의 미소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민족은행’으로 정할 것”이라며 “변화를 기다리기 보다는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패스트 체인저(Fast Changer)’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은행도 리스크·내부통제 쪽으로 같은 방향을 잡고 있다. NH농협캐피탈은 2026년 목표로 ‘업계 순위 Top7 도약’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AI 기반 업무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정보보안 체계 고도화 등을 6대 전략과제로 내놴. ‘그레이스 완’ 위험이 상존한다는 인식 아래,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메시지다.

장종환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는 “2026년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업계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NH농협금융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지주 및 자회사 고객전략 담당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NH농협금융지주 이찬우 회장(가운데)이 지난 1월 23일 개최된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생산적·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배드민턴 남북 ‘세계 최강’ 김원호,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
▲바둑 김은지, 3개월 연속 여자 랭킹 1위…신진서는 74개월 연속 정상
/사진 뉴스스

▲양현준의 셀틱, ‘폭우’로 애버딘과의 리그 일정 연기
▲김연경, ‘인쿠시의 나라’ 몽골서 뜨거운 환대… “방문 영광”

▲WBC 야구대표팀 최종 명단 6일 발표… ‘한국계’ 누가 합류할까
▲국가대표 미드필더 원두재, 어깨 부상으로 4~5개월 결장



세상을 바꾸는 금융

지아야, 너의 모든 순간은 이미 반짝이고 있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지아를 이 자리로 데려왔구나

설렘을 품고 꿈을 향해 달리는
너의 순간순간은 참 멋지고 아름다웠어

결과가 어찌 되든 괜찮아
이미 너는 누구보다 빛나는 선수니까

자랑스러운 내 딸 지아야!
이젠 국민 모두와 함께 너의 무대를 응원할게

지아 엄마 박혜인

신지아 선수의 빛나는 여정을
KB가 국민 모두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응원으로 찬란하게 빛나길

Korea Best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컬링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신지아

*** KB금융그룹**